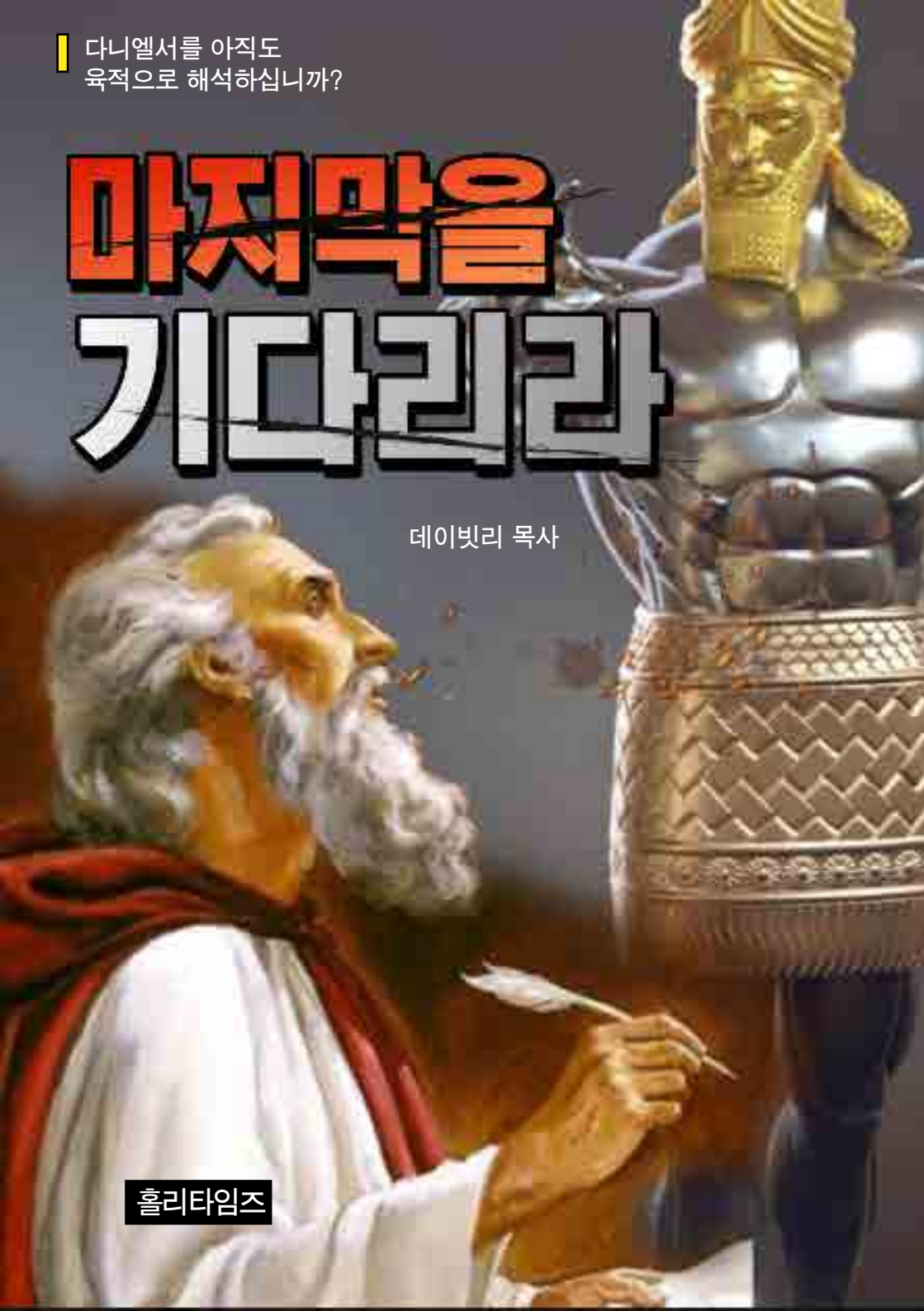


다니엘서를 아직도
육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A detailed oil painting depicting the biblical story of Daniel and the Lions. On the right, an elderly Daniel with a long white beard and hair, wearing a white robe with a red sash, looks upwards with a serene expression. To his left, four lions are shown in various poses: two in the upper left looking right, one in the lower left looking forward, and one in the bottom right looking up. The lions have thick, golden-brown manes. The background is a soft, hazy landscape with warm tones.

목차CONTENTS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composite image. On the left, there is a close-up of a person's arm and hand, wearing a garment with vertical stripes in shades of red, orange, and brown. The hand is raised, with fingers slightly spread. On the right, there is a lion's head and shoulders, looking towards the left. The lion has a golden-brown coat with darker spots. The overall background has a warm, textured, and slightly grainy appearance, resembling a painting or a high-quality photograph with a vintage feel.

〈제 1 부〉

- 제 1 장 다니엘서의 개요 _ 5
- 제 2 장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_ 23
- 제 3 장 다니엘서의 숫자들 _ 77
- 제 4 장 적그리스도를 닮은 자 _ 100
- 제 5 장 우상을 파쇄하라 _ 138

〈제 2 부〉

- 제 1 장 다니엘서 1장 _ 155
- 제 2 장 다니엘서 2장 _ 170
- 제 3 장 다니엘서 3장 _ 192
- 제 4 장 다니엘서 4장 _ 207
- 제 5 장 다니엘서 5장 _ 221
- 제 6 장 다니엘서 6장 _ 237
- 제 7 장 다니엘서 7장 _ 254
- 제 8 장 다니엘서 8장 _ 286
- 제 9 장 다니엘서 9장 _ 301
- 제 10 장 다니엘서 10장 _ 322
- 제 11 장 다니엘서 11장 _ 339
- 제 12 장 다니엘서 12장 _ 367

A dramatic illustration of Daniel in the lions' den. Daniel, a man with a beard and long hair, is shown from the waist up, wearing a white robe and a white head covering. He has his hands clasped in prayer and a halo of light around his head. He is surrounded by several lions in a dark, rocky den. The lighting is warm and golden, highlighting Daniel and the lions.

다니엘서의 구조



1 장

/

다니엘서의 개요

다니엘서의 가치

주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단 12: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미 80세가 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다니엘에게만 적용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장수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

을 날만 기다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니엘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잘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하셨습니다.

"[단 12: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전해 들었던 예언의 말씀을 봉합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발설치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발설치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잘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말씀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설교를 전하실 때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
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15절의 마지막에 괄호로 적혀진 내용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귀 있는 자'만 들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 13: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
니라"

주님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역시 마지막 날에 대해 매우 궁금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 오셨을 때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니엘이 누렸던 혜택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 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 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 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 24: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언급하실 때 다니엘서의 내용을 언급하셨던 것은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많은 자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지막 날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다니엘서를 읽으십시오.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the time of the end)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총 5회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다니엘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단 8:17]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단 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
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단 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단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
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단 12: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만
지말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

장부터 6장까지이며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전반부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기록되었으며 다니엘의 인생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부터 시작하여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반부(7-12장)에서는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다소 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며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에 대한 계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계시록이라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계시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했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계시를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이라는 말 <헤제우>는 환상(vision)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사용했던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요한 역시 '이상'을 통해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이나 다니엘은 이상(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계시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

상의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보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 보다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세상의 임금에게 관심이 쏠려 있으며 왜 자꾸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까?

1-6장의 개요

- 1) 다니엘 1장: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 금식, 기도, 경건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 2) 다니엘 2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는데 아무도 그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고 다니엘은 꿈 해석을 통해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 3) 다니엘 3장: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친구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셨습니다.
- 4)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이 두번째 꿈을 꿔으며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이 꿈 역

시 다니엘에 의해 해석되어졌습니다.

- 5) 다니엘 5장: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벨론에 임하셨고 벽에 그 진노하심의 글이 써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메대-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6) 다니엘 6장: 다니엘을 모함하는 대신들에 의해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 주셨습니다.

7-12장의 개요

- 1) 다니엘 7장: 다니엘은 세계 최강의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첫번째 환상입니다. 그는 4개의 세계 제국과 작은 뿔을 보았습니다.
- 2) 다니엘 8장: 이것은 두번째 환상으로 숫양, 숫염소,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 3) 다니엘 9장: 이것은 세번째 환상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과 이스라엘이 겪을 환란과 구원에 대한 70이레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 4) 다니엘 10장: 이것은 네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 내용은 12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 5) 다니엘 11장: 성전을 더럽혔던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자이며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는지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 6) 다니엘 12장: 주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진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임하라고 하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하면서 결국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북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남 이스라엘은 기원전 608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12년에 앗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앗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지역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야욕을 애굽 제국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야욕을 제지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 왕은 대군을 이끌고 유브라테 상 상류지역인 갈그미스로 진군했습니다(기원전 609년).

이 과정에서 남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했는데 그만

므깃도에서의 전투에서 적군의 화살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대하 35:20-24).

"[대하 35:20]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테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대하 35:21]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대하 35:22]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대하 35:23]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대하 35:24]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아 왕이 죽게 되자 곧바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반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 왕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반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장자 엘리야김을 여호아하스 대신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왕하 23:34). 명실공히 여호야김이 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하 23:34]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지만 여호야김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전쟁 배당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애굽에 조공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남 이스라엘은 약소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친 데 겹친 격으로 바벨론에서도 조공을 바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남 이스라엘은 두 제국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기원전 605년에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즉시로 남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가 남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성전의 금은 그릇과 보화를 챙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왕족과 귀

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단 1:1-4).

"[단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단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단 1:4]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때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단 1:6).

"[단 1:6]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포로들의 이야기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 동화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앗수르 제국의 정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앗수르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이 서로 섞이도록 사는 지역을 이동시켰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곳에는 다른 나라 백성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앗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인함이었습니니다. 그 결과 이교도들이 북 이스라엘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앗수르 제국과는 달리 식민지 동화정책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는 저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주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나라들이 바벨론화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화정책으로 인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동화정책에 의해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바벨론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최고급 학문을 전수했으며 바벨론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단 1:4]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젊은이들을 자신이 먹는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단 1:5]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동화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아람어를 배웠지만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왕이 제공하는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포로된 젊은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
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
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면서 오히려 채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관장에게
있어서 매우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채식
만 먹다가 얼굴이나 몸이 다른 젊은이보다 좋아보이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환관장에게 넘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채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섬기겠다는 의지와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다
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단 1: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
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단 1: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
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
소서 하매

[단 1:14]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단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단 1:16]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투철한 신앙심으로 인생을 살
았던 다니엘은 8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
왔을 때의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나이는 거
의 90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나이가 10세였다고 할지
라도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가 끌려왔을 때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사
의 고레스 왕이 모든 식민지 백성을 해방시켰을 때(기원전 537년)
에도 살아 있었으니 족히 그의 나이는 85세 이상 장수했던 것입니
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건강을 유지했으며 매우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
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
을 정도로 영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영혼
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
떻게 하면 영혼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잘 가르
쳐 줄 것입니다.



2 장

/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니엘서 2-7-8장 평행비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금

바벨론제국
(BC626-539)



사자
바벨론

은

메대/바사제국
(BC539-331)



곰
메대-바사



숫양
메대-바사

놋

헬라제국
(BC331-63)



표범
헬라



숫염소
헬라



작은뿔
시리아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상징

철

로마제국
(BC63-AD476 서로마)
(BC63-AD1453 동로마)



괴물
로마

철/진흙

열국시대
(AD476-세상끝)
적그리스도 출현



열뿔
열국시대
한뿔
적그리스도

돌

하나님나라
(세상끝-영원)



천국
주님나라



성전정화
주님의 재림 때에
성전정화 이뤄짐

짐승의 나라

다니엘서에는 짐승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짐승의 나라는 다니엘과 연관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헬라제국이나 시리아제국이나 애굽제국이나 로마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상 가운데 헬라제국과 시리아제국과 애굽제국, 그리고 로마제국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환상 중에 세계 최강의 제국들을 보았지만 그가 보았던 환상은 모두 실제였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았던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나라는 바벨론제국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바벨론제국과 메대-바사제국과 헬라제국, 그리고 시리아제국과 애굽제국과 로마제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세계적 최강의 나라들이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짐승이라 함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을 뜻합니다. 이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이며 이 짐승을 섬기는 나라들이 곧 짐승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나라들은 유럽과 동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나라는 이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제국이 있을 때에도 세계에는 수많은 짐승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로마제국이 유럽을 지배했을 때에 이미 세계에는 수많은 짐승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유럽과 동아시아에 국한된 세계 짐승의 나라들을 보았던 것은 그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제국이나 바사제국 그리고 헬라제국과 시리아제국과 로마제국은 모두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런 나라들만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시리아, 애굽, 로마만 짐승의 나라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자칫하면 잘못된 마지막 날의 모습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

리는 그런 점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독특한 꿈을 꿔는데 그것은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단 2: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
우니

[단 2: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यो 가슴과 팔들은 은ियो
배와 넓적다리는 놋ियो

[단 2:33] 그 종아리는 철ियो 그 발은 얼마는 철ियो 얼마
는 진흙이었나이다

[단 2: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
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단 2: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준 것이었습니다.

"[단 2: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단 2: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단 2: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단 2: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단 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숴뜨리고 뺏을 것이며

[단 2: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단 2: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단 2: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단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 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단 2: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바벨론 제국

다니엘은 신상의 머리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2: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대홍수 이후에 세워진 바벨탑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18세기에 세워졌는데 이 제국이 다시금 기원전 6세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부활된 것입니다.

머리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찬란하고 화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70년이 채 못되어서 메대-바사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꿈대로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메대-바사 제국

신상의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2:39 상]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단 2:39)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된 가슴이 보였던 것입니다.

원래 메대와 바사는 양쪽 가슴과 양 팔처럼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바사의 고레스가 왕위를 차지하면서 메대를 병합하고 말았습니다. 메대는 그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니다.

바사 제국은 비록 신바벨론 제국보다 그 영광이 덜했지만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기원전 331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

신상의 배와 넓적 다리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단 2:39 하] ...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헬라 제국은 실제로 청동문화를 세상에 보급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청동을 제련하는 기술이 매우 탁월해서 청동투구와 방패와 창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의 열정처럼 급속도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제국의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더위 속에 괴질 병에 걸려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기원전 168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신상의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빵을 것이며"

이 제국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헬라제국 이후에 로마제국으로 곧장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헬라제국 이후에 시리아제국과 애굽제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시리아제국과 애굽제국을 헬라제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리아제국과 애굽제국은 헬라제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대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밑에 있었던 장수들이 각각의 지역을 차지하여 헬라 제국이 분열되었는데 시리아제국과 애굽제국이 그들 중에 속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려 500년 이상 무적으로 대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로마제국은 헬라제국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북방의 게르만족에 의해 국경선은 무너졌으며 결국 기원후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방 나라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 2: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단 2: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이는 그 제국이 철처럼 든든할 것이지만 흙같이 부서지는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제국 이후에 세계는 여러 제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기원후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로마제국의 북방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기원후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마 제국이 기원후 476년에 헤룰리족의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철의 제국이 이제는 흙처럼 연약해진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초대형 강대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

러 나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열국 중에서 프랑크족, 서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등은 강한 나라로 성장했으며 동고트족, 반달족, 헤룰리족은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하고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족	나라/지역	기타
동게르만족	고트족	멸절(서고트족은 스페인,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크립고트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립타타르족에 동화되었다)
	반달족	멸절(북아프리카 아랍인에 동화되었다)
	랑고바르드족	멸절(이탈리아에 동화되었다)
서게르만족 (서유럽, 중유럽, 앵글로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켈트족이 원래 주류였으나 지금은 게르만족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다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로우랜드지방)	스코틀랜드도 켈트족이 원래 주류였으나 지금은 게르만족이 주류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미국(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노스다코타주)	다민족 국가이나 앵글로색슨족과 독일계 백인이 가장 많다
	캐나다	
	랑고바르드족	

게르만족	나라/지역	기타
	수에비	
	벨기에	
	이탈리아(취르티돌,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발레다오스타,피에몬테,트렌토)	
	덴마크(유틀란트반도 남부지역)	
	프랑스(알자스로렌,뮈케르크,칼레)	
	폴란드(실롱스크)	
	루마니아(트라실바니아)	
	러시아(알타이지방,옴스크주,칼리닌그라드주)	
	카자흐스탄(북부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하우텅주)	
	나미비아(하르다프주,카라스주,에롱고주,코마스주)	
	멕시코(멕시코주)	
	브라질(이스피리투산투주,산타카타리나주,히우그란지두술주)	
	아르헨티나(산타크루스주,라팜파주,엔트레리오스주)	
북게르만족 (노르드인이라고 불림, 현 북유럽 지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서부연안지역)	
	독일(슐레스비히홀슈타인)	
	프랑스(노르망디)	
	영국(채널제도,오크니제도,셰틀랜드제도)	
	이탈리아(살렌토반도)	
	러시아(무르만스크주)	
	미국(미네소타주,유타주)	
	캐나다(퀘벡주,온타리오주)	

다니엘은 철과 진흙이 서로 잘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지만 로마 제국의 강함은 게르만족에 의해 열방 나라로 나뉘지면서 약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 2: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약해진 유럽의 나라들은 힘을 하나로 모으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57년에 그들은 유럽경제공동체(ECC)를 만들고 1999년에는 급기야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유럽헌법이 만들어지고 유럽 대통령과 외무장관까지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연합과 정치연합을 통해 유럽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은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철과 진흙이 서로 섞여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드대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럽 나라들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게르만족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살펴보면 게르만족은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게르만족이 살고 있고 캐나다나 멕시코에도 게르만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

흠과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과 같은 나라가 진흠과 같은 나라를 규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의 최전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वाद 같습니다. 중국을 막아야 합니다. 중국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진흠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느므롯이 되고자 합니다. 그 옛날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지금도 저들이 느므롯과 같은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나 헤이그협약과 같은 몇몇 국제조약기구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조약구나 회의들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세계1차대전이 발발했고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못하도록 세

계 나라들을 아우르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유엔이 창설된 것입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유엔산하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는 세계 안결과 평화를 위한 기구이지만 영적으로 자세히 드러다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움직임 뿐입니다. 철과 진흙 이 하나가 되기 위한 방도인 것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유엔산 하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인간정주위원회 (HABITAT)

유엔마약통제계획 (UNDCP)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 (ODCCP)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

유엔인구기금 (UNEPA)

유엔대학(UNU)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UNCCD)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유엔합동감사단 (JUD)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
유엔시스템대학(UNSSC)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SSC)
유엔인간주거계획 (UN-Habit)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에이즈합동계획 (UNAIDS)
유엔연구사업소 (UNOPS)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UNISDR)
유엔인권이사회 (UNHRC)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만국우편연합 (UPU)
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기상기구 (WMO)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이주기구 (IOM)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세계무역기구 (WTO)

이처럼 열방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유엔이라는 거대한 틀에 의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세워진 유엔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오직 유엔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 세워진 유엔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철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과 같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철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진흙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철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진흙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다니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릴 것이며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라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 2: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단 2: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니이다"

'뜨인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세상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세상 나라는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뜨인 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에 맞으면 저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눅 20:17]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
뇨

[눅 20: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은 신상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확실함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뜨인 돌 되신 예수님에 의해 세상 나라들이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단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
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
석이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믿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꿈
해석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의 내용을 가르
쳐주지도 않았는데 이토록 상세하게 꿈 내용도 알 뿐만 아니라 너
무나 정확하게 그 해석을 알려주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다니
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2: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왕의 수석 고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
니엘을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
심을 알았으며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케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단 2: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

타내시는 자시로다

[단 2: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당신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해석을 그대로 믿습니까? 뜨인 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박살 나며 겨같이 되어 바람에 사라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십시오.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은 세상 나라입니다. 당신이 거해야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십시오. 그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7장의 짐승들

다니엘이 꿈을 꿔습니다. 바벨론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던 그 해에 꾸었던 꿈입니다. 그는 꿈에서 여러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꿔던 신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내용이 너무나 의미있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꿈을 꿔던 때가 기원전 553년경이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와의 세월은 무려 5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게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늘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비웃을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7:2]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터니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이 보았던 바다는 지중해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비록 다니엘서가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들이 언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세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하고요.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나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
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
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곧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곧 사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짐승은 네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10개의 뿔로 나옵니다. 이 10뿔은 곧

10개의 나라를 의미하고 10명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 10명의 왕과 10개의 나라는 모든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4개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4개 나라만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10개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개 나라와 10개 나라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 보여서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4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사도요한이 10개의 나라를 언급했다고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의 나라'에 대해 상징적으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4개의 나라를 언급했을 때 이 4개의 나라 모두 세상의 나라의 전부로 설명한 것이고 사도요한이 10개의 나라로 언급했을 때에도 이 10개의 나라가 모든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4개뿐도 아니고 10개뿐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4개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에 있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을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니엘이 언급한 4개의 나라 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언급했던 4개의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10개의 나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요한이 언급한 10개의 나라에는 사탄에게 속한

모든 세상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짐승 - 사자(바벨론제국)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는 사자, 곰, 표범,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언급되고 있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성경에는 '사자'가 바벨론제국이라고 직접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신상의 금머리를 가리킬 때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이 다니엘서의 2장의 신상과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 2: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바벨론제국은 기원전 626년에 건국되어서 기원전 539년에 메대-바사제국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두번째 짐승 - 곰(메대-바사제국)

다니엘이 본 짐승 중 두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7:5] 다른 짐승 꿈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
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
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
를 먹으라 하였으며"



곰은 끈질기고 잔인한 짐승입니다. 바사제국은 원래 메대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친족인 메대제국을 병합하여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곰은 잇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 나라를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기원전 547년에 소아시아의 리디아 나라를 정복했으며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기원전 525년에는 애굽을 정복했습니

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말처럼 엄청난 살육을 거쳐 위대한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제국과 싸우다가 기원전 331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는 양팔과 가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벨론제국을 정복했다고는 하나 바벨론제국의 영광보다는 약한 것으로 된 제국이었습니다.

세번째 짐승 - 표범(헬라제국)

다니엘의 꿈에 등장한 세번째 짐승은 표범이었습니다.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헬라제국은 낯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표범의 모습은 머리가 넷이었고 날개도 넷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헬라제국이 얼마나 빠르고 용맹스러운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보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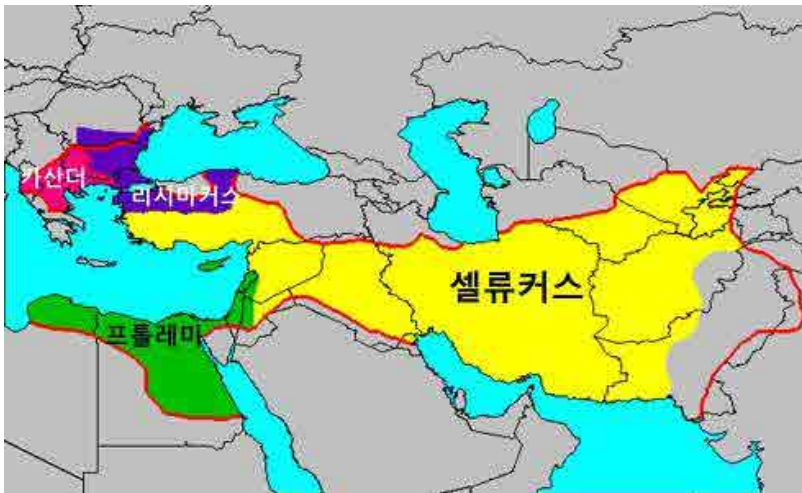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 필립스 대왕의 대를 이어 2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22세에 35,000명 소수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복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새처럼 빠르고 표범처럼 용맹하여 순식간에 바사제국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31년에 질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계 정복의 길을 나선 것이 기원전 334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때가 331년이었으니 3년도 안 되어서 지구상의 4분의 1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는 애굽을 정복했고 기원전 331년은 바사제국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정복전쟁을 치룬 나머지 몸이 피곤하여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3세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표범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과 불을 안 가리고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일을 진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겁니다. 놀라운 속도로 승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노력은 한순간에 꺼지고 말 것입니다. 물방울처럼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은 밋의 장수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부하장수들 간의 싸움은 22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01년 입수스(Ipsus) 전투를 계기로 헬라제국은 네 장수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봤던 표범의 머리가 네개가 있었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네

개의 머리는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입니다. 톨레미는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습니다.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헬라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를 차지했습니다. 셀류쿠스는 페르시아와 시리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네번째 짐승 - 괴물(로마제국)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네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중에서 종아리에 해당되는 철의 부분입니다.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
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
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다니엘서 2장에서도 로마제국은 철
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다니엘서 7장
에서도 로마제국은 철 이를 가진 괴물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
이 놀랍습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입니다.

"[단 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
아 부숩뜨릴 것이며"

넷째 짐승이 땅의 넷째 나라라는 것은 바벨론제국, 바사제국, 헬
라제국의 뒤를 이어 네번째로 등장하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제국은 강력한 군대와 정치 조직을 가진 철의 나라
였습니다. '큰 철 이'를 가진 괴물로 표현된 로마제국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결코
그의 인생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로마제국이었지만 영적으로 열

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다니엘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제국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과 같은 나라였는데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시작된 로마제국이 기원후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족의 일개 부족에 불과했던 헤룰리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도아케르가 갑작스럽게 로마를 침입했고 황제를 폐함으로써 참으로 어이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열 뿔 - 열방 제국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열방 제국은 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철과 같은 강한 나라도 있지만 진흙과 같이 약한 나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제국을 함락시킨 게르만족 중에는 철과 같은 족속이 있고 진흙과 같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네번째 짐승인 괴물에게 열 개의 뿔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이 열 개의 뿔은 로마제국을 함락시킨 게르만족속을 가리킵니다.

"[단 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단 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게르만민족은 알레마니족, 프랑크족, 부르군디족, 수에비족, 반달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롬바르드족, 헤룰리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민족에는 이 외에도 많은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꼭 10개의 게르만족속만이 열 개의 뿔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가 열 개의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뿔 - 적그리스도

다니엘은 한 뿔을 보았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열 뿔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한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이 '작은 뿔'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에게 이끄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니므롯'과 같은 자입니다. 니므롯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건물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도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은 단순히 벽돌로 쌓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단체를 의미하고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니므롯의 노예입니다. 그런 니므롯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니므롯과 같은 자는 강대국의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른 뿔'은 '열 뿔'에 비해 다소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

열 뿔'이 나랏요 왕인 반면에 거기서 나오는 '다른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뿔'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귀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러한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보다는 '짐승'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았듯이 그도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하셨듯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높으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된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그는 또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단 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와 법'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세상 사

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때와 세상의 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사람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멸하셨듯이 불로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벧후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벧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니엘은 짐승의 활동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짐승에 의해 고통을 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은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상징적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 같은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계 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위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짐승에 의해 '3년 반' 기간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이 기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기간을 '1260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위 구절에서 언급된 1260일은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같은 기간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는 짐승에 의해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난을 당하였으며 내일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심판 - 하나님 나라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단 7:9]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

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는 불이며

[단 7: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단 7: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베풀어 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 7: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단 7: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
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가장 먼저 마귀가 붙잡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도 함께 붙잡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일
천년동안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 받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만 살아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구름타고 임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베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 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다니엘 8장의 짐승들

다니엘이 또 다른 꿈을 꿴습니다. 지난번 7장의 꿈을 꾸지 3년 후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7장의 꿈이 벨사살 왕의 원년 때였기 때문에 원년, 1년, 2년으로 계산하면 3년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아마도 그 때는 기원전 550년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짐승 - 수양(메대-바사제국)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첫번째 짐승은 수양이었습니다.



"[단 8:3]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은 이 수양이 곧 '메대-바사제국'이라는 해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단 8: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의 환상은 메대-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라는 것은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보다 훨씬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는 것은 처음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보다 성장 속도가 느렸으나 점차적으로 바사인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8:4]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
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라는 말은 메대-바사 제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 고원지역에 자리잡은 메대-바사제국은 기원전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했고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서방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기원전 525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했고 이디오피아를 정복했는데 이것은 남방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기원전 513년에는 스구디아를 정복했는데 이는 북방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라는 말은 메대-바사 제국을 당할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짐승 - 수염소(헬라 제국)

그런데 다니엘은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온 것을 보았습니다.



"[단 8: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단 8:6]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단 8:7]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엮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그 수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라는 말은 메대-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을 침략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수염소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수염소는 헬라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단 8:21]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누구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
게 헬라제국은 강대해져 갔습니다.

"[단 8:8]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라는 뜻은 헬라 제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큰 뿔이 꺾이고'
라는 뜻은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열병으
로 33세때 갑자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망을 한 이후에 '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의 네 명의 장수들이 헬라 제국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장수는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입니다. 톨레
미는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습니다.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헬라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를
차지했습니다. 셀류쿠스는 페르시아와 시리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작은 뿔 -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에피파네스)

다니엘은 네 뿔 중의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8: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 8: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 중 한 뿔에서"라는 말은 분할된 네 개의 헬라제국 중 시리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 하나'는 셀류쿠스 왕조 제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름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자가 성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드러지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단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
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
며"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기 위해 성전에 부정한
제물을 바치거나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성전에 제
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에피파네스만 성소
를 더럽히고 훼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소를 더럽히
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소를 훼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소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소를 우
상 섬기는 곳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상이 한 나라
의 왕일 수 있으며 한 개인일 수 있습니다.

혹 당신은 에피파네스처럼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
하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피파네스를 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를 정결케 하신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단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2300주야가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300주야가 무엇을 뜻하며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2300주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정결화 작업을 이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같은 자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셀류쿠스 나라가 우리의 성전을 짓밟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성전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300주야가 필요합니다.

2300주야를 날로 계산하면 6년 3개월입니다. 2300주야를 받으

로 나눠서 계산하면 대략 3년입니다. 혹자는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떠한지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2300 주야는 하루나 이틀 정도로 짧은 기간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전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실 때에 성소에서 속죄 의식을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의 속죄 의식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성막 곳곳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 성전 역시 주님의 보혈에 의해 깨끗함을 입습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번째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은 각을 떼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제사가 드려졌지만 대체적으로 번제로 제사가 이뤄졌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떠진 것처럼 우리 역시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떨어져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이별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이별을 한 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세상과의 이별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세번째는 물두명에서의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원죄에서 해방됩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죄를 가리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원죄가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범죄는 회개が必要です. 우리는 물두명에서 자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네번째는 지성소에서의 깨끗함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1년에 오직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백성의 죄와 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먼저 송아지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레 16:16]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3 장

/

다니엘서의 숫자들

다니엘서에 나온 숫자 영적해석

(70이레, 한 때 두 때 반 때, 1290일, 1335일, 2300일)

바벨로니의 포로
BC586
BC585
BC584

바벨로니의 포로
AC25

바벨로니의 포로
AC25
AC26
AC27

유대인
해석

유대인
해석
7이레
49년
62이레
434년
1290일
1335일
2300일

7 이레
(49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의
복구와
영적 회개운동이
전개됨.
(스 10:1-3)

62 이레
(434년)
단 9:24-2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구세주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세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요 3:16)

2,000년 간격

이 기간은 69이레와
마지막 1이레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기간은 거의
2천년 정도이며
현직유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1 이레 (7년)
단 9:24-27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계 12:14, 마 18:10)

마귀가 성도를
침략하여 신앙을
바리도록 합니다.
중심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밀어집니다.
(계 13:5-7)

1290일 (단 12:11)
1290일은 1260일보다 30일이
더 길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1335일 (단 12:12)
1335일은 1260일보다 75일이
더 길입니다. 이 기간은 재림의
제물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2,300일 (단 8:14)
2300일은 1260일보다 1040일이 더 길입니다.
이 기간 역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
납니다.

천년왕국
(1,000년)

마귀가 불평함을 당하고
마귀의 추종자와
악한정신이 모두 불평함을
당하여 무지하게 강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천년왕국 때로
이 천년 기간동안
세상은 복원되는 것이
것입니다.
하지만 복원된 천국은
다릅니다. 천년왕국의 땅은
원래 지구에서 일어나지만
천국은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계 21:1)

유대인
해석

유대인
해석
7이레
49년
62이레
434년
1290일
1335일
2300일

7 이레의
영적해석

새로
거듭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하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구세주로
영정한다는 것은
거듭나심을
뜻하며 새생애
창조되는 것
입니다.
(창 2:7)

62 이레의 영적해석

성도의 성화과정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롬 10:9-10)

하나님께
양육받는 기간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도록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로부터
국립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계 12:14)

마귀에게
침략받는 기간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하나님께 양육받는 기간에
동시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양육받는 기간에
침략당하게 받게 됩니다.
(계 13:15-17)

주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가

첫째부활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인은 첫째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둘째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 죄로운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계 20:6)

1290일 (단 12:11)
이 기간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과 다릅니다.
1260일 (3년 반)과 1290일은 하나님의 양육과 마귀의
침략이 함께 있습니다.

1335일 (단 12:12)
이 기간 역시 양육과 침략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는
이 기간을 잘 견디며 주님의 재림 전에 의로운 성도로
인생을 함께 할 것입니다. 1260일과 비교했을 때
1335일은 마귀로부터 받는 환련이 길았음을 뜻합니다.

2,300일 (단 8:14)
이 기간은 성전이 성화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각 개인마다 성전 성화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그 짧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두에게 꼭 적용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숫자들

사도요한이 그의 계시록에 많은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역시 많은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나 다니엘서의 숫자는 모두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상징적으로 숫자를 넣어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자와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를 구별하

기 위함입니다. 육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영적인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는 육적인 자입니다. 이런 육적인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육적인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육적인 해석자를 오히려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육적인 해석을 따르는 자들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 7: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육적인 해석은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영적인 해석만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영적 해석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적인 해석을 취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해석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다니엘서에 나온 숫자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쓰인 숫자를 육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숫자 중에서 매우 난해하고 중요한 숫자는 70이레, 1260일, 2300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숫자는 1290일, 1335일,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3년 6개월)입니다. 이 모든 숫자는 기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는 모두 어느 한 사건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숫자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70이레의 끝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납니다. 1260일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납니다. 1290일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납니다. 1335일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납니다. 2300일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숫자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70이레의 영적 의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70년이라는 기간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이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가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렘 29:10]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때는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70년 회복이 있기 2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70년의 포로기간(기원전 606년~기원전 536년)이 끝나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70이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간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전해 주신 '칠십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칠십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위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네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칠십 이레'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칠십 이레'의 예언은 세계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천국의 거룩한 성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레'라는 말은 한 주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7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고 말한 것은 '칠년'을 의미합니다.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칠십 이레 때에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라고 봐야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비로소 목사의 기름부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과도 같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고 말하면서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진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단 9: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

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7이레'와 '62이레'를 언급하면서 이 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을 때였습니다(기원전 458년).

"[라 7: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 7:13] 조서하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날 때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기원후 26년).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비로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69이레'(7이레 + 62이레)는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때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69이레(483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69 이레'가 지난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이후에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천사는 장차 '한 왕'이 세상에 등장하여서 그가 성읍과 성도를 휘파하고 그의 권세로 인한 세상의 종말은 홍수처럼 엄몰될 것이고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황폐해져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한 왕'은 곧 '니므롯'과 같은 자이며 이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에도 나타날 것이며 미국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수천년 전에도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므롯 같은 자는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도요한은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사도요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했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러한 적그리스도들로 인해 세상은 황폐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케 된 세상은 '한 이레'동안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 이레' 중에 '69 이레'가 지나갔으니 지금은 '1 이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이레' 동안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하게 할 것입니다. 천사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그 이레의 절반'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이레의 절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한 이레의 절반'을 '마흔두 달'로 언급했습니다. 이 '42개월'은 곧 '3년 6개월'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한 이레의 절반'과도 같습니다.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의 3년 6개월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모두 묵시록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는 대체적으로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이레의 절반'이라는 기간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한 이레의 절반'은 흔히들 말하는 '대환란' 기간을 뜻합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기 보다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1장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 역시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 안에서 하나님

을 경배하는 자는 척량하셨으나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는 척량치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내버려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뜻합니다. 이 말은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를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이들은 '3년 반'동안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3년 반'인데 성전 바깥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재앙은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환난과 재앙이 믿

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1260일)의 영적 의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단 12: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 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단 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위 본문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주님이십니다. 강 좌우 편에 서있었던 천사들 중 한 천사가 주님께 "이 기사의 뜻이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사'라는 것은 그동안 다니엘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곧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언급하실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는 말은 성도의 권세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권세를 이용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짐승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고 강력하고 왕성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한 때 두 때 반 때'는 삼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삼년 반은 성도가 핍박을 받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받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삼년 반'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삼년 반'이라는 기간은 정확히 삼년 반이 아닙니다. 정확히 삼년 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 이레의 절반', 곧 삼년 반(한 때 두 때 반 때)의 날이 올 것이며 그 날에는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 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이레의 후 삼년 반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마흔두 달은 곧 삼년 반입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러한 삼년 반의 기간은 성전이 더럽히는 기간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우리 믿는 자를 말하며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곧 성전이고 우리의 교회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시점과 사도요한의 시점은 각각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과 연관되어서 말세를 보았지만 사도요한은 그보다 훨씬 뒤 역사와 연관해서 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

니엘의 마지막은 세계 대 제국의 멸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도요한의 포커스는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언급한 '그 때'와 사도요한이 언급한 '그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 때는 마귀가 붙잡힘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 때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 때는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 때는 성전이 깨끗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 때는 성도의 고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1290일의 영적 의미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의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지혜있는 자만이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단 12: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
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단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
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
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님은 1290일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 기간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동안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할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세워
짐으로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의 성전이 지금 마귀에 의해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지금 1290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삼년 반을 경험하
고 있는 것이며 '한 때 두 때 반 때'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290일은 요한계시록의 1260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숫
자는 30일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서 언급된 1260일이라는 숫자는 '삼년 반'을 의미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핍박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 마귀의 핍박과 방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1260일에 속한 것입니다.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호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은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35일의 영적 의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1335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 12: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은 매우 독특한 숫자입니다. 이는 1260일과 75일이나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발견되는 숫자입니다. 주님은 1335일이라는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335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290일이 성전의 더럽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335일은 그 더럽힘이 끝나는 때입니다. 1290일이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335일은 그 고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1290일은 마귀가 나를 핍박하는 때이지만 1335일은 마귀의 핍박이 끝나는 날입니다. 1290일은 마귀가 승리하는 때이지만 1335일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1290일은 마귀가 활동하는 때이지만 1335일은 마귀가 붙잡힘을 당하는 때입니다.

사도요한은 이러한 마귀의 활동이 끝나는 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제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마귀의 결국은 붙잡힘입니다. 마귀의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것
입니다. 마귀의 결국은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지옥같은
날들이 천국의 날로 변화될 것입니다.

2300일의 영적 의미

다니엘은 네 뿔 중의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8: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
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 8: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단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단 8: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
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
하여 형통하였더라"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작은 뿔이 그 한 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앞서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뉘진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뿔은 셀류쿠스 왕조인데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바로 셀류쿠스 왕조 제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자가 성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9절에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애피파네스 왕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뿔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기 위해 성전에 부정한 제물을 바치거나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를 정결케 하신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단 8: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단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2300주야가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300주야가 무엇을 뜻하며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2300주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정결화 작업을 이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같은 자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셀류쿠스 나라가 우리의 성전을 짓밟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성전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300주야가 필요합니다. 2300주야를 날로 계산하면 6년 3개월입니다. 2300주야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대략 3년입니다. 혹자는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떠한지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2300주야는 하루나 이틀 정도로 짧은 기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전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4 장

/

적그리스도를
답은 자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며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여러가지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70이레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의 예언도 들었습니다.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자꾸만 그 숫자들에 대한 의문이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의미를 깨닫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매우 갈등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다니엘의 마음을 속 시원히 뚫어줄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장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속 시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 놀라울 내용이 없겠으나 앞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11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역사적인 사건들로 가득채워져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한 가운데는 '에피파네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11장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전해 주셨던 것은 다니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파악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다니엘서 11장을 읽는다면 에피파네스라는 못된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야 비로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메대-바사제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였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메대의 왕 다리오를 도와서 강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11: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
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바사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메대-바사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메대-바사 연합국이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때 주님께서 도와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없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앗수르제국이나 바벨론제국처럼 바사제국 역시 악의 세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갇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으며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됨은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나는 지금의 나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단 11: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
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

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세 왕은 바사제국의 첫번째 왕인 고레스2세의 후계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캄비세스2세, 스멜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입니다. 캄비세스2세는 그의 동생 스멜디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원정을 떠날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귀국하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캄비세스2세가 애굽 원정에 나가 있는 동안 가짜 스멜디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르디아 라는 사람이 "내가 스멜디스다"고 사칭하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는 가짜 스멜디스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제위 2년되는 때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 뒤를 이은 네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기원전 426-465)인 물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 아들입니다. 그는 바사제국을 가장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시켰던 인물이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였던 왕입니다. 헬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원정길에 나섰지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로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고레스2세 때 이미 80세가 넘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세 왕들과 네번째 왕이 존재했을 때는 이미 다니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미래의 왕들에 대

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제국, 헤성같이 나타난 알렉산더

그런 강력한 바사제국이 헬라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단 11: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
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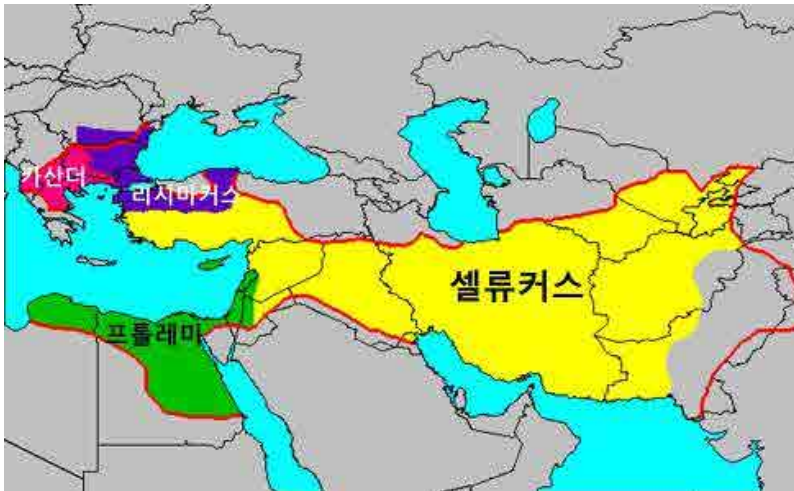
'장차 한 능력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는 헤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사제국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35,000명의 소수정예부대를 이끌고서 바사제국 정복 길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331년에 바사제국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남쪽으로는 애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네 개의 제국으로 나뉜 헬라제국

그가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헬라 제국은 크게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단 11: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주님의 예언대로 알라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12명의 장



군들의 영토 분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명의 장수에 의해 헬라제국이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은 셀류쿠스 장군에게,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은 톨레미 장군에게, 마케도니아는 카산더에게, 트라키아와 비시디아는 리시마쿠스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알렉산더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두 아들은 모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혈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제국과 시리아제국의 싸움

그렇게 네개의 제국으로 분할된 헬라제국은 또 다시 남제국과 북제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남제국은 애굽제국이었고 북제국은 시리아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제국이 다른 제국에 비해 훨씬 강력했습니다.

"[단 11:5]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은 애굽의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는 헬라제국이

네 개로 분리될 때 가장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애굽은 다른 나라보다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톨레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류쿠스 1세였습니다.

애굽제국과 시리아제국은 서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단 11: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톨레미 2세는 지중해와 유대지역의 확보를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시리아와의 골치 아픈 싸움을 끝내기 위해 안티오크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레니케와 결혼하였을 때에 이미 안티오크스 2세에게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오디케였는데 베레니케와의 결혼을 위해 그녀를 쫓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쫓겨났던 라오디케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케는 남편 안티오크스 2세를 독살하였고 베로니카와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한 뒤에 자신의 아들 셀류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 애굽과 시리아는 더욱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톨레미 2세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톨레미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베레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시리아를 공격해서 정복했습니다.

"[단 11:7]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단 11:8] 그 신들과 부어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는 바로 톨레미 3세를 가리킵니다. 톨레미 3세가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시리아의 왕 셀류쿠스 2세는 애굽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우상 2,500점을 노획하여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2세가 애굽을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단 11: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

기 본국으로 물러 가리라"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왕 셀류쿠스 2세(칼리니쿠스)는 애굽 왕 톨레미 3세(유에르게테스)로부터 받은 수모를 보복하기 위해 기원전 242년에 애굽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2년 후인 기원전 240년에 시리아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셀류쿠스 2세(칼리니쿠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형이었던 셀류쿠스 3세는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전쟁 중에 동료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형을 대신하여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애굽의 속하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공격하였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기원전 219년). 그는 더 나아가 애굽까지 공격했습니다. 주님은 안티오쿠스 3세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애굽 땅까지 침공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단 11:10]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단 11: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불인 바 되리라

그 당시 애굽 왕은 톨레미 4세였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보병 62,000명, 기병 6,000, 코끼리 102두 부대를 동원하여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선 애굽은 보병 70,000명, 기병 5천, 코끼리 73두 부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217년 라피아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는 애굽에게 돌아갔고 시라아는 패배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애굽의 톨레미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에게 빼앗겼던 옛 영토까지 되찾았습니다.

톨레미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마음을 스스로 높혀 수만 명을 엎드리뜨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11: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
할 것이요"

그는 예루살렘을 재탈환 하였을 때에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의 권세는 약해져 갔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톨레미 4세를 그렇게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톨레미 4세에 의해 패하여 수리아로 돌아온 안티오쿠스 3세는 또 다시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는 먼저 주변 국가인 아르메니아, 파르티아, 박트리아 등을 정복했습니다. 틈틈히 애굽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던 때에 톨레미 4세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독단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빌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굽 땅을 분할하겠다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기원전 198년).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땅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톨레미 4세가 원인모를 병으로 갑작스레 죽게 되자 겨우 7세밖에 되지 않은 그의 아들 톨레미 5세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오리게 되자 주변 국가의 여러 왕들이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중 몇몇 사람들이 시리아의 힘을 빌어

독립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 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14절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단 11: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 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들 시리아파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듯 보였습니다. 왜냐 하면 안티오쿠스 3세가 가나안 땅을 탈환하는데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시리아의 더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시리아로부터 성전의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 3세의 뒤를 이은 에피파네스 4세는 철저한 살륙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극심한 고난이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 인간의 욕심에 의한 선택과 결정은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동맹국이었던 마케도니아의 협력과 유대의 시리아파의 도움을 받아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단 11: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단 11: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단 11: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영화로운 땅인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 땅을 점령한 뒤에(기원전 198년) 애굽 본토를 침략하려던 그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그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시리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애굽 땅을 공격하기 보다는 오히려 애굽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 톨레미 5세에게 내어주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오히려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를 배신하고 자기 남편인 톨레미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만듭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딸 클레오파트라의 배신으로 인해 애굽 정복을 실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켰습니다.

"[단 11:18]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지중해의 섬들과 서쪽 해안지대를 공격하여 몇몇 섬들과 트라키아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해안지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손실을 당한 후에 결국 시리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18절 하).

로마 장군 스키피오에게 패하여 본국으로 돌아온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영토의 성읍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11: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의 계획은 반란군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에피파네스의 등장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 그 큰 아들인 셀류쿠스 4세(필로파토르)가 왕위에 오릅니다(기원전 187-175년).

"[단 11:20]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위를 이을 자'가 바로 필로파토르입니다. 필로파토르는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떠맡게 된 배상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 본토와 부속 국가들로부터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강제로 세금을 거둬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 '토색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토색하다'라는 말은 <노계쉬>인데 이는 '조공을 수집하는 자'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에는 '강탈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제로 세금을 거둬드리고 보화를 약탈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화들까지 약탈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정부를 향해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민중의 소요가 극심해지자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루스가 필로파토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필로파토르는 짧은 인생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입니다.

"[단 11:21]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 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패배했을 때 당시 관례에 따라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로마에 볼모로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간계를 꾸며서 볼모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불러들여 자기를 대신하여 볼모로 있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그의 삼촌 에피파네스의 약속을 좋게 여겼고 그의 뜻대로 로마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로마에서 풀려나 곧장 고향 시리아로 돌아

왔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도중에 그의 형 필로파토르가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루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곧장 시리아로 입성하여 헬리오도루스의 군사를 제압하였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피파네스에 대해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의 신분이 비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권모술수로 행했습니다. 간교한 계략을 꾸밈으며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아첨과 아부로 대했지만 약자에게는 비열함과 잔인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관료들과 주변 국가 왕들은 에피파네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왕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 군대가 에피파네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는 에피파네스를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지만 패하고 말았

습니다.

*"[단 11: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또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왕이 없었던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헬리오도루스와 동맹을 맺고 에피파네스를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는 헬리오도루스와 오니아스 3세의 군사들을 격파하였습니다. 결국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훗날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23절 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11: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에피파네스는 조카 데메트리우스와의 약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겠다던 약조는 순전히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피파네스는 그의 조카인 애굽 왕 프톨레미 6세와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서는 오히려 애굽을 침공하여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거짓말장이며 간교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주며..."(24절 중)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11: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 말씀대로 에피파네스는 여러 나라에서 노략한 물건을 주변 지도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행동입니다.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70년에 애굽을 침략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군대를 격파시켰습니다.

"[단 11:25]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단 11:26]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단 11: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
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주님은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
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2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 왕 톨레미 6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애
굽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톨레미 6세의 관료들을 포섭하여 톨레
미 6세를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애굽을 내란에 빠지게 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에피파네스는 즉시로 애굽을 침공
하여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점령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두개의 왕국으로 분
리시켰습니다. 하나는 톨레미 6세에게 다스리게 하고 다른 하나는
톨레미 7세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분리시킴으로 인해 애
굽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톨레미 6세는 에피파네스의 말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따랐습니
다. 하지만 톨레미 6세는 지속적으로 애굽의 세력을 하나로 뭉쳤습
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톨레미 6세의 의도는 에피파네스에 의해
적발되었고 에피파네스는 재차 애굽을 침공하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후에 시리아로 귀국하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단 11: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는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임의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임의로 갈아치우는 악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을 직위 해제하고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메넬라우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직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에피파네스는 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11:29] 작성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
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단 11: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
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단 11: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터럽
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
울 것이며"

'작성된 기한'은 에피파네스가 재차 애굽을 침공했던 것을 말합니다. 톨레미 6세가 에피파네스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서 오히려 기회를 타서 에피파네스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을 간파하고서 재차 애굽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차 때 침공했던 것보다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개입 때문입니다. 애굽의 배후에서 시리아를 견제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 2차 애굽 침공은 별로 큰 이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깃딤의 배들'은 구브로로 진격해 온 로마의 배들을 말합니다. 원래 구브로에는 시리아의 배들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애굽을 침공할 때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로마의 배들이 침공해 와서 그곳에서 에피파네스를 협박하여 시리아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피파네스는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사절 포필리우스는 에피파네스를 만나 그 주

변으로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서 애굽에서 철수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철회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시리아로 철군하게 된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철군을 할 때에 다시한번 유대인들의 충성을 다지기 위해 유대의 헬라화 작업을 강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미 로마에 의해 치욕을 당하였던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에게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곳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리아 군사들은 성소에까지 들어와 성소를 무참히 더럽혔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30절 중). 이는 헬라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역시 헬라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31절 하).

에피파네스는 번제단이 있던 자리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설치했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바쳤습니다. 모든 유대인 종교의식을 헬라식 의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달콤한 말로 유대의 배교자들을 꾀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11: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들을 통해 유대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 자존심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꺾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리아 군사를 대항하여 용맹하였습니다.

"[단 11: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에피파네스의 회유정책이나 여러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시리아 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헬라화 정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최일선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경건파인 하시딤(Hasidim)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하시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수하였던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환란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굳건케 할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힘을 다한 서기관들과 하시딤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쇠태해져 갈 무렵에 마카비가문이 시리아를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단 11:34]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궤환로 그들과 친할 것이며

[단 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마카비 가문의 인도를 통해 유대 사람들은 효과적인 항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마카비 가문의 혁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대성공을 이루게 되자 그동안 에피파네스에 빌붙어서 목숨을 부지하였던 비겁한 자들이 그 틈을 이용하여 마카비 쪽에 붙어서 함께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

을 가리켜 "... 많은 사람은 궤홀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34절 하)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에피파네스가 계속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단 11:36]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걱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단 11: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단 11:38]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단 11: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는 스스로 높아져 자기 뜻대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신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 하지만 그의 때는 정해졌으며 그 정해진 때가 이르면 결국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최후는 멸망 뿐입니다. 비록 악인이 지금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위 구절이 단순히 에피파네스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위 구절이 로마 교황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구절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위 구절의 내용은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 맘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신보다 스스로를 더 큰 존재로 여깁니다. 그는 세계를 자기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모든 영역을 자기 맘대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성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후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으며 파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 14:16]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사 14:17]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만일 당신 주변에 싸우길 좋아하고 파괴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의 멸망

드디어 에피파네스가 멸망을 당합니다.

"[단 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자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단 11: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

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단 11:42]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단 11: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
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마지막 때'라는 말은 에피파네스의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남방 왕이 북방 왕을 공격했습니다. 남방 왕은 애굽의 톨레미 6세입니다. 그가 로마의 힘을 입어서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역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즉시로 군비를 확보하여 아주 빠르게 애굽으로 진군했습니다. 주님께서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함이 마치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40절 하).

그가 애굽을 공격할 때에 또 다시 유대 땅에 들어갑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41절 상). 에피파네스가 애굽 땅을 공격할 때에 많은 나라들이 패망케 되었습니다. "...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41절 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에피파네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많은 나라들이 패망하였으나 오히려 그

들이 에피파네스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악인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멸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혼란이 생겨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에피파네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에피파네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령대로 헬라화 정책을 아주 잘 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를 대항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에피파네스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삽니다. 오히려 믿는 자보다 더 잘 삽니다. 마귀가 주는 복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주는 복이 있듯이 마귀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결코 이런 세상이 주는 복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이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자일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에피파네스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피파네스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단 11: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
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
멸코자 할 것이요

[단 11: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지만 에피파네스가 변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변민케 하므로..."(44절 상). 그를 변민에 빠지게 한 것은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군은 시리아 왕궁을 공격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즉시로 군대를 시리아 본국으로 돌리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애굽과 주변 나라를 완전히 정벌하려고 했던 계획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 군대는 곧장 시리아로 회군하게 하여 반란군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다른 한 군대는 에피파네스가 직접 지휘하여 유대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예루살렘 근처에 세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45절 상).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 군대를 배치한 것은 유대를 재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마카비 독립군에 의해 유대 내에서 시리아 세력이 많이 격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헤치지 않았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함이었습니

다. "...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45절 하). 주님의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죽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악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악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닮은 자,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적그리스도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꿈해석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적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작은 뿔은 에피파네스였습니다. 다니엘은 네 뿔 중의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8: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 8: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 중 한 뿔에서"라는 말은 분할된 네 개의 헬라제국 중 시리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 하나'는 셀류쿠스 왕조 제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름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자가 성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드러지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단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

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기 위해 성전에 부정한 제물을 바치거나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에피파네스만 성소를 더럽히고 훼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소를 훼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소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소를 우상 섬기는 곳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상이 한 나라의 왕일 수 있으며 한 개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성전을 더럽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가진 자들은 성전의식을 파괴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8장에 앞서 7장에서 작은 뿔을 보았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열 뿔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사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한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이 '작은 뿔'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에게 이끄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니므롯'과 같은 자입니다. 니므롯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건물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도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은 단순히 벽돌로 쌓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단체를 의미하고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니므롯과 같은 자는 강대국의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른 뿔'은 '열 뿔'에 비해 다소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 뿔'이 나라요 왕인 반면에 거기서 나오는 '다른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뿔'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보다는 '짐승'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높으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된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단 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와 법'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때와 세상의 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

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귀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5 장

/

우상을
파쇄하라

우상을 파쇄하라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신 스스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셀 수도 없는 많은 우상을 섬겼던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며 배우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배우자가 우상이 된 사람들

입니다. 재정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K-pop 과 K-drama 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저들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뛰어난 가수나 탈렌트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K-pop 가수들을 가리켜 '아이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아이돌(Idol)'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이돌의 뜻을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상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스스로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상이 된 그는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에게 우상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마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파쇄하십시오

오. 우상의 텃에서 벗어나십시오. 우상과 멀어지십시오. 우상을 떠나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우상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신 스스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30미터이고 넓이가 3미터였으니 매우 큰 신상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금으로 덮어 씌우도록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드높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육십 규빗이요 광은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왜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에 의해 자신의 신상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의 신상을 세웠던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의 꿈에 나타난 신상과 똑같은 모습의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분명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에 의해 분명히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찌된 일입니까?

물론 그의 신상은 다니엘이 꿈해석을 하기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신상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상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상에 금을 입히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우리나라 모두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금을 입혔듯이 어쩌면 우리도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금을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세운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신상보다 더 높고 큰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파쇄하는 사람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든 후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짐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단 3: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
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
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단 3: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
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오늘날에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 제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지도자가 많
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정에도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우
상에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가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지도자
가 있습니다. 혹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하지만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
다.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제의를 거절했
습니다. 죽을지라도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느부갓

네살 왕은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단 3: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단 3: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 군사들이 즉시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은 엄청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이 전혀 그을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단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 3:17]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
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
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 3: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
벳느고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
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단 3: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단 3:21]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겹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단 3: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단 3: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 친구가 승리했습니다. 보기 좋게 우상은 파쇄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은 세 친구에 의해 파쇄되고 말았습니다. 세
젊은시와 느부갓네살과의 대결은 하나님과 우상간의 결투였습니
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승리하셨습니다.

참된 경배자

하나님은 참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경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경배자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참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파쇄해야 합니다. 참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상을 파쇄합니다.

참 경배자에게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경배자의 입에는 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세 친구에게서 우리

는 참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 3:17]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 3: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 경배자를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강력한 참 경배자를 만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리가 존경할만한 참 경배자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참 경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에 거하지 않았다면 우상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짐승의 우상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은 매일 우리에게 우상에 게 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짐

승의 핍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
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
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자신의 나라에 거한 모든 자에게 우상에게 절하도록 요구
할 것입니다. 짐승이 세상의 권세를 사로 잡을 때 우리 믿는 자는
더욱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핍박입니다. 먹고 사는 문
제가 당면하면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리 힘들다 할지라도 풀무불보다는 더 뜨겁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의

삶

하나님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온유함과 충성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증인은 특별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계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증인의 삶은 일반적인 삶과는 다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리튀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marty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 경배자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순교하셨으며 우리들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제 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니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메대-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은 고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장인 다리오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입니다.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자 수석 총리를 다니엘로 임명했습니다. 그 당시엔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수석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바벨론제국이 무너졌을 때 다니엘도 무너져야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자신들을 제치고 다니엘이 수석총리 자리에 올랐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단 6:4]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
물도 없음이었더라"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공직자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작은 비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에나같은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이었
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
람인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
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상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
지고서 공격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 사장
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회사를 선택할래"라고 말한다면 우리들 대
부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저
들은 "다리오를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라는 시험을

가지고서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단 6:5]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단 6:6]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단 6: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저들은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온 백성에게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절하게 하는 금령을 내리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들의 요구가 너무 좋아보여 그만 저들 말대로 금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내린 금령은 왕이라도 번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금령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단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

나눔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늘 하던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당신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짚릴 것을 알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듯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한 없이 멋져 보이지만 그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금령이 공포되었으니 왕이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온전했습니다. 사자들이 조금도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무리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숴뜨려 먹었습니다.

"[단 6: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단 6:20]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
셨느냐

[단 6:21]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단 6: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
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단 6: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단 6:24]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
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
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
지도 부숴뜨렸더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
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가 나라의 총리였으나 그가 섬기
는 왕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서의
장별 해석



1 장

/

포로된
다니엘

[단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기원전 605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노고를 격퇴시키고 유다를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번째 유다침공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모두 세번 있었는데 두번째는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고 세번째는 기원전 586

년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애굽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의 형제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므깃도 전쟁에서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패하여 죽었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느고는 애굽을 대적한 요시아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대신하여 그의 이복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각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매우 잔인하고 인정없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그가 왕 위에 있었던 3년 쯤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단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굳게 잡고 있었던 구원의 끈을 놓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을 때 성전마저 넘기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열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2절 상).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열마'라는 단어는 <미크찰>인데 이 단어의 뜻은 '끝에서 끝까지 그 분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마'라는 단어가 성전의 기물 일부가 아니라 성전의 기물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물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습니다. 성전의 기물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신의 성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신은 '벵'(Bet)이라고도 불리우는 '므로닥'(Merodach) 또는 '마르дук'(Marduk)이라고도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바벨론의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으뜸의 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므로닥 신전의 보물로고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이방신의 기물이 된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신을 위한 노리개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을 위해 가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 되었듯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신 손이 놓여질 때 이방인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심을 포기하실 때 세상 신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단 1:4]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단 1:5]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단 1:6]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단 1: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네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 중에서 뛰어난 소년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으로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볼모로 잡아두기 위함이었으며 저들을 잘 훈련시켜 저들로 하여금 속국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된 소년들은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대신들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다에서 잡혀온 소년들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삼 년이라는 기간동안 갈대아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바벨론 식 관

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무수히 많은 나라를 침공했으며 수많은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삼 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갈대아인으로서의 자질과 성품을 익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대략 나이가 15-20세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소년'이라는 단어는 <엘라딤>인데 이 단어는 대략 15-20세 정도의 소년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의 나이는 15-20세 사이였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로써 왕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죽음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제사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관습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이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은 이미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이 제사 음식인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먹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지만 제사 음식인 줄 알고서 먹을 경우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전 10: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전 10: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밋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수님도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여 먹는 음식으로 인해 죄를 짓지는 않는지 걱정하며 행여 마시는 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 15: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 15: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 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 15: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
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이나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단 1:9]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
라

[단 1: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
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채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8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구하니'라는 단어는 <예바케쉬>인데 이 말은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매달려 구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청을 할지라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니엘의 얼굴이 초채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못한 것을 왕이 본다면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해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있다고 일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의 성취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1:11]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
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단 1: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단 1: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단 1:14]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단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
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단 1:16]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
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의 뜻에 그의 세 친구도 동참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왕
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10일동안 채소를 먹었
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문자 그대로의 10일이라고 볼 수도 있
겠으나 충만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의 10일
기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얼굴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환관장과 약속한 10일이 지난 후에 환관장이 그들의 역
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아 보였습
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을 제하고 그들

이 원하는 채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친구가 채식만 먹고도 훨씬 건강을 유지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채식을 한 이유는 제사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비록 채식만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먹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다니엘에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상'이라는 말 <하존>은 환상을 말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가 보여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데 이러한 환상은 모두 마귀로부터 보여지는 이상입니다.

'몽조'는 <할름>인데 이 단어는 '꿈'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니다. 꿈은 잠재의식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은 속사람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꿈의 의미를 바로 알면 매우 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꿈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 해석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 세상적인 꿈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쟁이가 꿈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꿈 해석은 모두 마귀의 능력에 의한 꿈해석으로써 오히려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꿈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꿈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꿈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꿈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꿈은 이상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과 꿈의 차이는 그 주체입니다. 이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꿈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꿈은 사람이 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상과 꿈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깨달아 알다'라는 말은 <빈>인데 이 말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과 꿈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

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단 1:18] 왕의 명한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단 1: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단 1: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단 1: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3년 동안의 훈련기간을 마치고 네 소년이 왕 앞에 불러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소년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 그 지혜와 총명이 매우 뛰어남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 네 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옆에서 이상과 꿈을 해석하는 박수와 술객들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내노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능력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세상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가 기원전 539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혔던 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으니 고레스 왕 원년까지는 대략 70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70년이나 넘도록 바벨론과 바사의 대신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수명입니다.



2 장

/

꿈 해석자
다니엘

"[단 2:1]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이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꿈을 꺾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꿈을 꺾은 것입니다. 다만 꿔던 꿈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이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못 이뤘던 것은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꿈'은 <할로모트>로서 <할름>의 복수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꿈을 여러차례 계속해서 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꿈들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spirit)을 가리키는 <루아흐>입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이 번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번민했던 것입니다. '번민하다'라는 말은 <파암>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밀치다', '찌르다', '몰아대다', '치다', '재촉하다', '압박하다'입니다. 뭔가 느부갓네살의 영을 찢어대고 몰아가며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느낌이 보통 때와는 다른 느낌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꾸는 꿈들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꿀 때에 예사치 않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매우 선명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꿔던 꿈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예사치 않는 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 그의 영혼이 번민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가 꿈 때문에 잠을 못이룰 정도였다는 사실을 미루어보아 아마도 여러날 비슷한 꿈을 계속해서 꿔으며 그의 꿈들이 틀림없이 뭔가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단 2:2]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단 2: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단 2: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단 2:5]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단 2: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단 2: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단 2:8]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단 2: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단 2:10]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 하였나이다

[단 2:11]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단 2:12]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단 2: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료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를 불렀습니다. '박수'는 주일 학교 교사나 성경교사와 같은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자세나 우상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술객'은 마술사를 말합니다. '점장이'는 점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사'는 바벨론 박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자들로 예언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자신이 꾸는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꿔던 꿈을 잊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꿈을 꿔기 때문에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꿔던 꿈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었

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와 술객과 점장과 술사들에게 자신의 꿔던 꿈까지 알아 맞추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와 술객과 점장과 술사들은 도저히 왕의 꿔던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10절 상)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꿔던 꿈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꿈 내용을 알아 맞추라고 하는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단호한 반응은 더욱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11절)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신들은 대체적으로 육체와 함께 거한 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띤 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이라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만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박사들이 하나같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때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급기야 그는 모든 바벨론의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바벨론의 박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에서는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13절 상)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이미 박사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즉시로 효력이 발동하여 왕의 시위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위대는 닥치는대로 박사들을 죽여 나갔습니다. 급기야 시위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까지 찾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높은 계급은 아니었을지라도 하위 관료였을 것입니다. 이미 높은 지위에 있는 박사들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위 관료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임의 문턱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단 2:14]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단 2:15]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단 2: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다 하니라

[단 2: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단 2: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만일 시위대 장관 아리옥과 친분이 두텁지 않았다면 아

마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시위대 장관을 통해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박사들은 죽임을 면하기 위해 허겁지겁 도망을 쳤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도망을 치기 보다는 담대하게 시위대 장관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그의 삶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이처럼 담대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모습은 이방인이었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고귀한 인격이 아리옥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기 보다는 오히려 일의 자초지종을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이 그를 찾아왔을 때 "...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15절 중)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를 묻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다니엘이 함부로 아리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리옥의 화를 돋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매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14절 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철함과 슬기로운 말

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마도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을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평정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명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슬기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고 멸시를 받게 합니다.

"[단 2: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단 2: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단 2:20]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단 2:21]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단 2: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단 2:23]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아리옥과의 대화 이후에 곧장 그의 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알려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네 사람은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아리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벌였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위대 군사들을 통해 박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박사들이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일 때..."(19절 상). '이상'이라는 말은 <헤제우>인데 이 단어는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환상은 상상과 다릅니다. 상상은 내가 주체이지만 환상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상상은 나 스스로 뭔가를 그릴 수 있지만 환상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환상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나타나 보일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 보이다'라는 말은 <겔라>로서 '포로로 잡아가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뇌를 사로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뇌를 포로로 사로잡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결코 환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다니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뇌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단 2:24]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이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

리리라

[단 2:2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단 2:26]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단 2: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단 2: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단 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단 2: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능력도 없고 백성을 구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한 다니엘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차례 거듭 언급했던 것은 어떻게하든지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꿈을 해석해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 뇌 속으로 받은 이상..."(28절 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꿈해석을 들은 방법과 똑같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 내용과 해석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이상'을 통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해석과 왕의 꿈 내용을 모두 '이상'이라는 단어로 묶은 이유는 왕의 꿈 내용이 지극히 영적인 내용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단 2: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

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
송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28절 중)라고 말한 것을 통해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이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꿈 해석은 단지 목숨을 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하든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2: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단 2: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단 2:33]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단 2: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단 2: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먼저 말했습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매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보여졌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 뜨렸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꿈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다니엘만이 이렇게 보지 않은 꿈 내용을 상세히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니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십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겁니다. 그만큼 그의 꿈 내용이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꿈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 꿈 내용을 알 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상대방의 꿈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내용을 보여주실 때에만 어떤 꿈인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꿈 내용을 알려 주신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꿈 내용을 알게 될 것이며 꿈 해석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 2: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단 2: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단 2: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단 2: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단 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숴뜨리고 빵을 것이며

[단 2: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

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단 2: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다니엘은 꿈 내용을 먼저 밝힌 후에 곧바로 꿈 해석을 했습니다. 금머리는 현재의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가슴과 팔 부분은 바사제국이었으며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헬라제국을 가리키고 종아리 부분은 로마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발 부분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제국의 뒤를 이은 바사제국은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고 해석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28절 상). 또한 셋째 제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셋째로 또 늦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28절 하). 이 세번째 나라(배와 넓적다리)가 바로 헬라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은 이 세상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나라가 철과 같이 강하여서 못 나라를 부숴 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40절 상). 바로 이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온 세상은 철과 진흙이 섞이듯이 나뉘질 것이고 피차간에 서로 합하여지지 않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

재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뜨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나뉘진 세상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단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꿔던 꿈의 최종 결과를 말할 때에,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 신상을 부숴뜨린 모습을 말했습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파쇄한 것입니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여러차례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든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과 은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철과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반석되신 주님에 의해 파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금나라에도 거해서는 안 됩니다. 은나라에도 거하지 마십시오. 놋나라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철 나라를 거부하십시오. 진흙같은 나라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오직 반석과 같은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비록 깨진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비록 모퉁이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단 2: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옆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단 2: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단 2: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단 2:49]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가 금과 같은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뜨인 돌되신 주님께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47절 상)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인 것을 잘 느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그 해석이 실제로 맞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뜨인 돌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 더 뛰어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신령한 자 중의 최고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위에 더 신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임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니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침착했으며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 친구를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못 되었을 때는 남의 탓을 하지만 사람이 잘 될 때는 자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 친구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세 친구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친구를 높은 자리에 등용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왕은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의 지방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하루아침에 지방의 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은혜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친구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가 다니엘을 돕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아마도 그렇게 뛰어난 해석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은 충분히 친구의 도움 따위는 필요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해 준 게 뭐가 있냐면서 오히려 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굶주림을 당하거나 슬픔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웃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3 장

/

세 친구의 신앙

"[단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육십 규빗이요 광은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30미터이고 넓이가 3미터였으니 매우 큰 신상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덮어 씌운 것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드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금신상 제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꿈 해석을 전해 듣기 이전부터 이미 금신상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 의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중의 한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신론자였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니엘에 의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다신론자인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30미터나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런 신상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금신상 이듯이 우리들이 만든 신상도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몇 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에서도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금신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금신상입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멋져 보이는 신상입니다.

"[단 3:2]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단 3:3]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단 3:4]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단 3: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앞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단 3:6] 누구든지 앞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단 3:7]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앞드리어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5절 하). 만일 그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풀무'라는 단어는 사실상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실제적인 히브리 말은 <아툼>인데 이는 금속을 녹이거나 벽돌을 굽기위해 사용된 용광로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큰 용광로였습니다.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용광로에

집어 넣어 타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용광로에 사람을 넣어 태워죽이는 형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용광로 속에 넣어 태워죽이는 형벌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지난번 꿈해석을 못하는 박사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우상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우상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듯 악해집니다. 이는 우상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상과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는 유일신이십니다.

"[단 3:8]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단 3: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단 3: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앞드리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단 3:11] 누구든지 앞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단 3: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어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단 3: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 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단 3: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단 3: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앞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

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꼴불견스러웠던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끄는 주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 하나 더 섬긴다고해서 특별히 해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신상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상징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로서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저들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유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던 것은 저들이 지방도시의 수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들이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참소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심히 노하고 분하여 직접 저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끌려 왔습니다. 다니엘은 꿈 해석을 하기 위해 왕 앞에 나왔었지만 다니엘의 세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끌려 온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꿈해석 때문에 왕 앞에 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친구처럼 세상의 왕 앞에 끌려 갈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세친구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넣어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14절 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자신이 금신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신도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 의해 하나님의 신이 제법 능력이 많은 신이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온 세상 천지를 주관할만큼의 위대한 신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 친구를 결코 용광로 속에서 꺼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오산이었습니다.

"[단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 3:17]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 3: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끌려 왔지만 그들의 믿음까지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왕 앞에 담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처럼 담대했습니다.

왕은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풀무(용광로) 속에 집어 넣어 태워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왕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들은 반드시 그리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혹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결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우 높은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위대합니다. 오직 그 위대함은 믿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우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기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곳이지만 그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
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단 3: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단 3:21]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겹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
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단 3: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단 3: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단 3:24]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단 3:25]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나서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위낙에 성격이 불과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장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들이 도망을 칠까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끌고 가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은채 풀무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끌고

갔던 군사가 불에 태워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세사람은 풀무불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는 풀무속에 있는 사람이 네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흑시라도 잘못 보았나 싶어서 확인차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하도 이상해서 옆에 있던 모사들에게 "...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지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24절 중)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도 풀무 속에 네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이는 왕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본 것이었습니다.

풀무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은 세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결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모사들이 본 네번째 사람은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세사람을 돕기 위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풀무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리 저리 움직였습니다. 극렬히 뜨거운 풀무 속이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풀무 속에 사람을 던져 놓고서 그가 타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주 고약스러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왕과 모사들이 세사람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왕과 모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혹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그 기적을 보고서도 좀처럼 충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단 3:26]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려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단 3:27]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단 3: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단 3: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단 3: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렸습니다. 이는 그들을 풀무로 부터 나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관람했던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27절 상). 수많은 관리들이 세 사람의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머리털이 조금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 색깔이 전혀 바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을 태워죽이는 극렬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이들에게 불에 탄 냄새조차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급히 전국에 조서를 보내어 하나님을 설만히 대하는 자는 죽임에 처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설만히'라는 말은 <살라>인데 이 말은 '게을리하다', '소홀히하다', '속이다', '실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고 속이거나 실수하는

자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만히 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만히 행하고 있다면 즉시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 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인생 일대의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4 장

/

변화받은
느부갓네살

"[단 4: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 4: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단 4:3]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시 조서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이번 조서

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조서를 통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조서는 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백성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4:5]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단 4:6]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단 4:7]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단 4: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단 4:9]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단 4: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
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단 4: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단 4: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
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단 4:13]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
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단 4:14]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단 4: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낫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단 4: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
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리라

[단 4: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시 꿈을 꿔했습니다. 그는 꿔던 꿈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꿔던 꿈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꿔던 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꿈은 모든 사람이 꾹니다. 꿈을 안 꾸는 것 같아도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꿔지만 꾹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내가 꿈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꿈에는 잃어버린 파편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환상은 잃어버린 파편이 없지만 꿈은 잃어버린 파편이 있습니다. 환상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꿈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속사람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 꿈은 속사람의 영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꿈해석과 환상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꿈해석을 할 때 주의 사항은 잃어버린 파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구체적인

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꿈 전체적인 영적인 내용을 잡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상을 해석할 때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환상은 잃어버린 파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서 그 꿈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5절 상). 그가 꿈을 꾸고서 두려워했던 것은 그 꿈이 예사스러운 꿈이 아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이 예사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꿈의 내용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갖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 갑니다만 영적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신들을 섬겼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할 정도로 매우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5절 하)라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꿔던 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하르호르>라는 단어는 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주로 이 <하르호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깊이 생각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는 말은 <혜제우>로서 '환상'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때 에라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과 '환상'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을 환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환상'을 상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과 '환상'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상상'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 '환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지만 환상의 나라는 나 스스로 펼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는 말을 스스로 말하였던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여러 박사들처럼 꿈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꿰던 꿈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꿈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꿰던 꿈에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꿈해석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꿈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해석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4: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단 4: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빙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박사들은 왕의 꿈을 해석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꿈과는 달리 두번째 꿈 내용을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박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꿈으로 인해 '... 얼마 동안 놀라 빙빙하며 마음이 번민...' (19절 상)했습니다. '놀라 빙빙했다'는 말은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워서 그만 말을 꺼낼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번민하다'라는 말은 <베

할>인데 이 말은 '무섭다',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놀라 어쩔 줄 몰라하고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왕의 꿈이 너무나 안 좋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꾸었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박탈당하고 쫓김을 받으며 미치광이가 되어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해석한다면 틀림없이 왕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토록 놀라워하며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단 4:20]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단 4: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더라 하시오니

[단 4:22]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단 4: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낫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단 4: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단 4:25] 왕이 사람에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단 4:26]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단 4:27]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대로 해석했습니다. 비록 꿈 해석이 안 좋은 내용이었지만 솔직하게 해석했습니다. 꿈 해석으로 인해 혹시 죽음을 당하게 될 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대로 꿈해석을 말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이 왕위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일곱 때(일정한 기간) 기간동안 들짐승같이 생활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왕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며 스스로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다시금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최대한 꿈해석을 하나님 편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꿈해석을 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과를 그릴 때 밝은 빛이 들어오는 쪽에서 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꿈해석을 할 때 세상 편에서 하거나 인간 편에서 하게 된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 4: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단 4: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단 4:30]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단 4:31]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단 4: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단 4:33]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

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단 4: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단 4:35]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
듣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
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단 4:36]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
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단 4: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
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
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꿇던 꿈
을 다니엘에 의해 해석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
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
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31절 하)라는 소리가 들렸

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에게 들려줬던 해석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과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때를 지날 때에 그가 다시 복권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치 짐승으로 스스로 여겨지고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짐승처럼 야외에서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그가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더니 진짜로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곱 때'가 지난 후에 그의 총명이 돌아올 것이고 왕위를 복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34절 상). 또한 그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였습니다. "...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36절 하).

혹자는 이 '일곱 때'를 가리켜 7년 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여름과 겨울을 각각 한 때로 계산하여 '3년 반'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

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영적 의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의 영적 의미와 적절히 결합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일곱 때'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이요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32절 하). 그래서 '일곱 때'의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곱 때'는 충만수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달려있는 기간입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곱 때'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정신병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 왕의 왕이요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5 장

/

바벨론제국의 멸망

"[단 5:1] 벨사살 왕이 그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일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단 5: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
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단 5: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
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
시고

[단 5:4]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

들을 찬양하니라

[단 5: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단 5:6]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의 외손자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말이 왕이지 사실은 왕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진짜 왕은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늘 원정길에 나섰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계보를 잠시 살펴보면, 느부갓네살(기원전 605-562년)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에일 므로닥'이 왕위에 오릅니다. 무려 40년을 넘도록 왕위에 있었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비해 그는 겨우 2년 동안밖에 왕위를 지켰습니다(기원전 562-560년). 왜냐하면 그의 부하이자 의형제였던 '네르갈사레셀'에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위는 '네르갈사레셀'에게 넘어갔고 그는 4년 왕위에 머무르다 죽게 되었습니다(기원전 560-556년). 그가 죽게 되자 어린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дук'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기원전 556년). 하지만 '나보니두스'에 의해 집정 9개월만에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이 바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첩으로 잡혀와서 후궁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의 딸을 나보니두스에게 줘서 양아들이면서도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의 집정 기간은 기원전 556-53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벨사살의 기록이 없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왕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2년 정도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 자꾸만 외부 지역으로 원정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벨론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점점 바벨론의 세력은 약화되어 갔습니다. 급기야 바사는 메대와 연합하여 2년 동안 바벨론을 포위했습니다. 거의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벨사살은 바사 메대 연합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바사 왕 키루스에 의해 패배를 당하였고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해오던 벨사살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

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잘 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 자리에 앉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곤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놀고 먹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자그마치 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 일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1절 하). 그런데 바로 그날 그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술과 함께 망한 것입니다. 나라도 잃고 왕위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히 농락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해 왔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서 술을 따라 마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농락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벨사살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글씨가 되어 벽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치 사람의 손이 되어서 벽에 글씨를 쓰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벨사살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벨사살의 얼굴 빛이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해 기분좋은 웃음을 지었던 벨사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각

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번민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에 가득찼다라는 말입니다. '번민'이라는 단어 <베할>은 '무섭다',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넓적다리가 녹아 내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는 힘이 빠지고 마비 현상이 온 것입니다.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단 5:7]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단 5:8]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단 5:9]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낮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단 5:10]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낮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단 5: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

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단 5: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벨사살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9절 하). '놀라다'에 해당되는 말 <세바쉬>는 '매우 혼란하여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인들도 벽에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당황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와 박사들을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7절 하). 그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말한 것은 현재 그가 둘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실제 왕이고 그는 다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는 이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태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태후는 다니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단 5:13]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나

[단 5:14]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단 5:15]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단 5:16]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드리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처리자를 삼으리라

[단 5: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재물과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벨사살의 약속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해석을 잘 하게 되면 즉시로 바벨론의 세번째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세번째 치리자의 약속을 했던 것은 그가 현재 둘째 치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실제적인 일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벨사살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주는 재물도 원치 않았습니다. 셋째 치리자의 자리도 다니엘은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재물과 상급을 원치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엔 오직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하든지 벨사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 5: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
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단 5: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

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단 5: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단 5:21]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 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꼭 그의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이는 벨사살의 문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직면했던 문제와 똑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똑 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라했던 때가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했던 적이 있었음도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뜻이 강박해짐으로써 교만해 졌음도 말했습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도 말했습니다. 그가 들짐승처럼 미친 자

가 되어 들에서 살게 되었던 것도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왕위를 회복하게 된 사실도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말은 벨사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다니엘의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멸망을 당하고 맙 것입니다.

"[단 5: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단 5:23]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흠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벨사살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 온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실

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백성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신뢰적이며 적극적으로 높여 드렸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섬기는 자세도 없고 낮추는 자세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다니엘에게 꾸짖음을 당할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 그의 아들이 되어서..."(22절 상)라고 말한 것은 그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벨사살이 그의 외손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손자라 할지라도 '아들'로 표기했으며 외할아버지를 '아버지'로 표기하길 선호합니다. 이는 중동지역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나 선조를 부를 때 흔히 '아버지'로 표현하고 손자나 후손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줌을 싸고 똥을 눈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또한 듣도 보지도 못한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다니엘의 꾸지람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당신 앞에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어떤 꾸지람

을 할 것 같습니까? 혹 당신도 벨사살처럼 똑같은 꾸지람을 그에게서 듣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당신을 꾸짖을 정도라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면 당신 또한 당신의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죽었듯이 당신도 바로 오늘 죽게 될 것입니다.

"[단 5: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단 5:25]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단 5:26]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단 5:27]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요

[단 5: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단 5: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로 그의 목에 드리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단 5:30]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단 5: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

다니엘은 벽에 써진 글자를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나 박사들이 벽에 써진 글자를 볼 수 없어서 해석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비로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벽면에 써진 글씨는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가능합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비록 영적인 사람이라고는 할지 모르나 그들은 우상의 영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당이 어찌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어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경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면 그것 역시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경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성경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다고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써진 글자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글로 글을 쓰신다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다만 손의 형체가 벽에 글씨를 쓰는 모습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지 글을 못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글이 쓰여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글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글자의 숨겨진 영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의 말의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뜻은 '세어 보고 세어 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말을 읽고서 그 뜻을 이해하듯이 바벨론 사람들도 아람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서 그 뜻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어 보고 세어 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라는 말의 숨은 영적인 뜻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유치원생이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학용어를 듣고 보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의 뜻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언어도 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의 뜻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한글로 써진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벽면에 써진 글자를 해석해 줬습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해 줬습니다. 먼저 그는 <메네>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메네>라는 아람어의 일반적인 해석은 '세어 보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영적인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달아보다'란 뜻을 가진 <테겔>이라는 단어를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어졌다란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이 <바르신>이라는 말에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우>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써진 것인데 다니엘은 이 단어의 단수형인 <베레스>의 뜻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단어가 영적으로 해석이 될 때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그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성경 역시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때는 아주 놀랍고 깊이있는 영적 의미가 발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6 장

/

다니엘의 신앙

"[단 6:1]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단 6: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단 6: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단 6:4]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단 6:5]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단 6:6]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단 6: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단 6:8]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단 6: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바벨론 제국이 메대-바사 연합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해가 기원전 539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 왔으니 대략적으로 66년이 지난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20세였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그의 나이는 86세가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들의 나이가 15~20세 정도였으니 어림잡아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이치고는 상당히 늙은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30세 미만이었던 때였기 때문

입니다. 80세 이상이었다는 것은 엄청 장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늙은 다니엘이 여전히 인기 절정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있었던 그는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메데-바사 제국은 총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수석 총리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되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니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으나 새로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수석 총리 자리를 앉게 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수석 총리 자리에 앉혔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시르게 하고자 한지라"(3절).

이러한 다리오 왕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관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메데-바사 제국의 관료들은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쫓아낼만한 계락을 짰습니다. 기가막힌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금령을 세우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그렇

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준다는데 기분 나쁜 일은 아닌듯 싶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당시 상황은 고레스 2세 왕에게 다소 밀린 느낌을 갖고 있었을 다리오 왕이었기 때문에 관료들의 이러한 요청은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상 다리오 왕은 메대-바사 제국의 왕이긴 했지만 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2세와의 관계에서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레스 2세가 왕위를 탐냈다면 아마도 다리오 왕은 메대-바사 연합국의 초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당시의 메대는 바사에 비해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귀속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고레스 2세 왕이 메대-바사 제국의 왕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인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높이 올려주겠다는 관료의 말에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다리오가 고레스2세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고 절대로 그 조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금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 조서를 내리면 그 누구라도 그 조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서를 내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서 내용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수석 총리 자리에서 내 쫓을 수 있는 기가막힌 계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단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 외의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다리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조서의 내용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죽음에 처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평상시 하던대로 똑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만이 그의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즐거움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세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전달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니엘의 왕이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잠시 예배를 멈추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마치 공부를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공부를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수학을 어떤 사람의 경우엔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세번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들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재미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다니엘과 같습니까?

"[단 6: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 6: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단 6:13]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단 6: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 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단 6: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단 6:16]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 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단 6:17]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구를 막으매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

려 함이었더라

[단 6:18]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다니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한 무리들입니다. 왜 그들이 다니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그들도 예배 드리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을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떳떳합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듯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신이 났습니다. 유대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도대체 누가 저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혹시 이웃집 우상에게 전해 들었을까요? 알라신이 저

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도대체 저들은 왜 예수께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걸까요? 도대체 왜 메대-바사제국 관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안달이었을까요?

혹 당신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않습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자들에게 다니엘은 딱 걸렸습니다. 이제 저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미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졌기 때문에 도저히 다니엘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조서를 내렸던 다리오 왕 역시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어인을 찍었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조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리듯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나 미안스러워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끔찍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파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14절 상).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리들에게 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16절 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보통 사람같으면 이런 위로의 말은 별 도움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매우 큰 위로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말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위험의 순간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리오 왕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단 6: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단 6:20]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단 6:21]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단 6: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

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 하였나이다

[단 6: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단 6:24]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자 굴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 굴에 있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서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21절)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자 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확연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자 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다리오 왕에게 "...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21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자 굴로 끌려 갔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니만 사자 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이 많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끌려 갈 때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살아났을 때에 이처럼 말을 많이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겨우 하셨던 말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문장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자 굴에 끌려 갔을 때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끌려 갔을 때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 굴에서 살아 남을 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진실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말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말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진실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많은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부활을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말을 한다고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말로만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말로만 당신이 진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당신이 선한 사람임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단 6: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단 6: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단 6: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단 6: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의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26-27절).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이 기뻐했을까요? 80세가 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80세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힘이 없는 호랑이처럼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입니다. 지난 젊은 시절의 좋았던 때를 추억하며

사는 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아직도 끄떡없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역사만큼은 그 누구보다 왕성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다니엘처럼 끄떡없습니까? 당신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게 지냈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다음 왕입니다. 메대-바사 제국이 바사제국으로 통합되었을 때에 고레스2세 왕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으로 알고 있는 그 왕이 바로 고레스 2세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 때문에 어찌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모든 포로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사실이라면 다니엘은 실로 큰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가 몇세까지 총리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80세가 훌쩍 넘은 그로서는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대하 36:22]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대하 36: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

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7 장

/

제국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계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이며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전반부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기록되었으며 다니엘의 인생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부터 시작하여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반부에서는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다소 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며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에 대한 계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계시록이라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계시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했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계시를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이라는 말 <헤제우>는 환상(vision)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사용했던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요한 역시 '이상'을 통해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이나 다니엘은 이상(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계시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보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한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 보다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세상의 임금에게 관심이 쏠려 있으며 왜 자꾸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까?

당신도 다니엘처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사도요한처럼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니엘에게 이상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상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상을 열어주실 때 당신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여진 계시는 어찌면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내용과는 사뭇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다니엘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니엘이 아니며 다니엘도 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이상과 당신이 받는 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이상도 하나님의 것이며 다니엘이 보고 듣는 이상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이상도 귀한 것이며 다니엘의 이상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단 7:2]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

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나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이 '바다'로부

터 나왔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곧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곧 사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짐승은 네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10개의 뿔로 나옵니다. 이 10뿔은 곧 10개의 나라를 의미하고 10명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 10명의 왕과 10개의 나라는 모두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4개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4개 나라만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10개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개 나라와 10개 나라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 보여서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4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사도요한이 10개의 나라를 언급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의 나라'에 대해 상징적으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4개의 나라를 언급했을 때 이 4개의 나라 모두 세상의 나라의 전부로 설명한 것이고 사도요한이 10개의 나라로 언급했을 때에도 이 10개

의 나라가 모든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4개 뿐도 아니고 10개 뿐인 것도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4개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에 있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니엘이 언급한 4개의 나라 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4개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10개의 나라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이 10개의 나라는 사탄에게 속한 모든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는 사자, 곰, 표범,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곰'은 메대-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니엘서 2장에 의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계시를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2장의 계시와 연관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네번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그 짐승에게 '열 뿔'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열 뿔' 곧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열 뿔'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이 '열 뿔'이 넷째 짐승에 의해 나온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 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
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김새가 다른 세 짐승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자의 모습도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 일반 사자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고, 표범에도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가 넷이나 된 것이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네번째 짐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짐승의 모습은 매우 무섭고 놀랍게 생겼습니다. "...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7절 중). 생김새가 일반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철과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을 발로 밟았으며 다른 세 짐승과는 아주 많이 모습이 달랐습니다. "...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7절 하).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네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번째 짐승에게 '열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열 뿔'을 '열 발가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단 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

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뺏을 것이며

[단 2:41] 왕께서 그 밭과 밭갈이가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 '열 뿔'은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 존재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은 단순히 10개의 나라만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열 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탄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훼방하고 핍박하는 일을 담당하는 나라와 왕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열 뿔'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이 '열 뿔'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나라가 강력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요일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열 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8절 상). 이 '작은 뿔'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에게 이끄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니므롯'과 같은 자입니다. 니므롯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건물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도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은 단순히 벽돌로 쌓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단체를 의미하고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니므롯의 노예입니다. 그런 니므롯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니므롯과 같은 자는 강대국의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지도자일 가

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7:9]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

[단 7: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단 7: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은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단 7: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파쇄시키십니다. 다니엘은 사탄의 나라를 파쇄하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옷이 눈 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같고 그 바퀴는 불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이고 그를 따르는 자가 만만이었습니다. '천천이요 만만'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천군천

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도 없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책을 펼쳐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니므롯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 뿔'을 뽑으실 것이며 짓밟으실 것입니다. 저들의 최후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저들의 최후가 붙는 불에 던져진 것을 봤습니다. "...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11절 하). 사도요한도 짐승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

케 한지라

[단 7:16]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단 7: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단 7:18]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단 7: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숴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단 7: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다니엘은 다른 날에 또 다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상 중에 예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14절 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 역시 하나님 아버지 것이지만 그 영광을 예수님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아버지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나라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느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함께 할 것입니다. "...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14절 중). 모
든 나라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
는 '나라'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를 '나
라'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습
니다.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나라'로 언
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성도를 가리켜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그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만국'이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모이고 '나라'가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각 방언하는 자'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 방언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새가 새와 대화를 나누고 짐승이 짐승과 대화를 나누듯이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한 우물에서 단 물과 쓴 물이 나오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할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약 3: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
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약 3: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
느냐"

이렇게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 7: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
민케 한지라

[단 7:16]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다니엘이 자신이 보았던 이상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보았던 네 짐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네 짐승과 열 뿔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모신 천사에게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16절). 그가 천사와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뛰어난 영적 교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계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꽃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기와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천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에게 이상을 해석해 준 천사는 예수님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되었든 다니엘은 자신이 보았던 이상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 7: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단 7:18]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보았던 '네 짐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었습니다. 이 네 왕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17절).

이 네 왕은 매우 큰 왕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앞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네 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 큰 짐승'은 곧 '네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는 '네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왕은 곧 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국'을 뜻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속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자, 곰, 표범,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진 이 네 나라는 모두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되었듯이 사자가 의미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곰이 의미하는 나라는 바사입니다. 표범이 의미하는 나라는 헬라입니다. 철의 짐승의 의미하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네 나라 모두 세상 나라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라는 뜻입

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를 뜻하며 사탄을 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에 속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세상 나라에 거해야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요일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18절 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여기십니다.

"[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 7: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숴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단 7: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단 7: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단 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단 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단 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

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이 다른 짐승에 비해 아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넷째 짐승은 "...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숩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19절 하)였습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제국은 실제로 다른 제국과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대로 로마제국은 아주 무섭고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의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부숩뜨릴 것입니다. "...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숩뜨릴 것이며"(23절 하).

그런데 이 넷째 짐승 이후에 "열 뿔"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 후에 열 뿔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 '열 뿔' 곧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열 뿔'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이 '열 뿔'이 넷째 짐승에 의해 나온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열 뿔'이 뭘지 알려줬습니다. 이 '열 뿔'은 곧 열 개의 나라요 열 개의 왕이었습니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24절 상).

이 '열 뿔'은 열 개의 나라와 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0 개 나라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열 뿔'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뿔'에서 또 다른 뿔이 나왔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 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20절 상). '열 뿔'에서 또 다른 뿔이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뿔 역시 세상 나라와 세상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뿔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입니다. 이 '다른 뿔'은 '열 뿔'에 비해 다소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 뿔'이 나라요 왕인 반면에 거기서 나오는 '다른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뿔'을 가리켜 '적그 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은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수 도 없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귀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러한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보다는 '짐승'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았듯이 그도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하셨듯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높으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된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그는 또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25절 중). '때와 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와 법'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때와 세상의 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사람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멸하셨듯이 불로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벤험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벤험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벤험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니엘은 짐승의 활동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25절 하). 성도가 짐승에 의해 고통을 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은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상징적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 같은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계 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

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위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짐승에 의해 '3년 반' 기간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이 기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기간을 '1260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
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
신 곳이 있더라"

위 구절에서 언급된 1260일은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같은 기간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는 짐승에 의해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난을 당하였으며 내일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단 7: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단 7: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단 7: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낮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강하고 집요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26절).

마귀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 열국'은 마귀를 쫓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27절 상). 그리하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주님을 섬기며

복종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항상 계신 자'(13절)와 '지극히 높으신 자'(27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계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2절에서는 그 두 분 하나님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위 구절에서는 한 구절 안에서 '항상 계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 구절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정확히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게 해 주는 구절들이 많습시다만 구약에서 이런 내용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예수께서 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내용을 환상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요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윗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 22:43]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마 22: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
느냐"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와 '주'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주'는 예수님이셨고 두번째 '주'는 하나님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주'가 모두 똑같은 분이라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것이고 다윗이 시편에 언급했던(시 110:1) 구절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8 장

/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단 8: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삼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단 8:2]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래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다시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상을 보았을 때에는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상을 보았는데 그때는 벨사살 왕 3년째였습니다. 대략 3년만에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 개념은 왕이 즉위할 때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를 1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해를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삼년'이라고 표현된 것은 벨사살 왕이 즉위한지 4년 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년에 이상을 보았고 4년 째에 이상을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차례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적어도 세차례 이상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환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년 째에 이어 3년째에 환상을 보았다고 언급한 것은 여기에 언급된 환상이 매우 중요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환상이나 사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외에 수많은 환상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다니엘이니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스스로는 낮추려고 하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당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했듯이 당신도 충분히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3년 쯤에 보았던 환상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엘람도 수산 성'에 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내 몸은 엘람도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래 강변에서니라"(1절 하). 역사적으로 볼 때 벨사살 3년 때는 '엘람도'가 메대-바사제국에 귀속되었습니다. 벨사살 3년 때는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메대-바사제국이 열리게 되는데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바사제국에 속한 성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다니엘은 지금 환상 가운데 '엘람도 수산 성'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본 것은 '을래 강변'이라고 했는데 '을래 강변' 또한 엘람도 수산 성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는 그가 환상 가운데 엘람도 수산 성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은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지만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던 것과 같습니다. 환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엔 이런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환상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러한 설명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도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다른 지역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에

스켈이 바벨론에 거하면서도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 8:3]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단 8:4]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단 8: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단 8:6]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단 8:7]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단 8:8]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의 환상은 메대-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그는 '두 뿔 가진 수양'을 봤는데 그것은 메대-바사 제국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라는 것은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보다 훨씬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는 것은 처음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보다 성장 속도가 느렸으나 점차적으로 바사인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라는 말은 메대-바사 제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라는 말은 메대-바사 제국을 당할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온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한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라는 말은 메대-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을 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의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라는 뜻은 바사제국이 헬라제국에게 패하여 정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의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라는 뜻은 헬라 제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큰 뿔이 꺾이고'라는 뜻은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열

병으로 33세때 갑자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망을 한 이후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명의 장수들이 헬라 제국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장수는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쿠스'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헬라제국은 애굽(톨레미), 시리아(셀류쿠스), 마케도니아(카산더), 비두니아(리시마쿠스)로 나눠졌습니다.

"[단 8: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 8: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단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단 8: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단 8: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 까지 이를꼬 하매

[단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네 뿔 중의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9절 상). 이미 앞서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뉜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뿔은 셀류쿠스 왕조인데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바로 셀류쿠스 왕조 제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자가 성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9절에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11절 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기 위해 성전에 부정한 제물을 바치거나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를 정결케 하신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는 2300주야가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300주야가 무엇을 뜻하며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

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2300주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정결화 작업을 이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같은 자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셀류쿠스 나라가 우리의 성전을 짓밟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성전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300주야가 필요합니다. 2300주야를 날로 계산하면 6년 3개월입니다. 2300주야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대략 3년입니다. 혹자는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떠한지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2300주야는 하루나 이틀 정도로 짧은 기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전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단 8:15]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단 8:16] 내가 들은즉 올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

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이 자신이 보았던 이상에 대해 그 해석을 알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상의 해석을 알려준 이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15절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그 목소리가 가브리엘에게 이상을 해석해 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16절 하).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상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상(환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상상과 생각 뿐입니다. 오직 이상(환상)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상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명하신 기록 때문에 천사만이 이상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보다는 천사를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서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시켜서 이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라고 명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천사입니다. 마리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으며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눅 1: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눅 1: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러한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 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천사를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단 8:17]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단 8: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단 8:19]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은 정해진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그 때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 그 정해진 때를 막을 수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정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만족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단 8: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단 8:21]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단 8: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단 8: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휼에 능하며

[단 8: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단 8:25] 그가 꺾을 베풀어 제 손으로 궤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단 8: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단 8:27]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었습니다. 또한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즉'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장수에 의해 나라가 네 개로 분리된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3절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는 셀류큐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홀에 능하며'라고 말했는데 '엄장하며'라는 말은 그가 염치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못된 자임을 가리킵니다. 또한 '궤홀에 능하다'라는 말은 그가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뜻을 감추는 교활한 자라는 뜻입니다.

24절에,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에피파네스가 군주가 될만한 능력이 없는 자이나 동맹군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권좌에 앉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

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24절 하)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능력도 없고 교활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선택받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는 교활한 자여서 피를 베풀어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자기 부하 아폴로니우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마카비일서 1:29이하).

하지만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25절 하).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내장이 썩는 질병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악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가 아무리 잔 피를 부리고 교활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성전을 더럽힌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9장

/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단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단 9: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서책을 읽을 때에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서책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날 처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

레미야서를 여러차례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 것은 다리오왕의 원년 때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땅의 황폐함이 끝나게 될 날이 이제 곧 다가옴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 다니엘은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모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지극히 국한적인 부분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듣고 보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음성 듣는 것이 발달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선지자는 환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마다 그의 능력과 은사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다르듯이 다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르듯이 다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다르듯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듯 우리의

은사도 다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남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9: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단 9: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서 즉시로 회개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니엘의 회개기도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회개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회개기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고국

으로 되돌아 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회개기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기도가 스스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금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일을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금 다른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릎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행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멸망을 당했으며 영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는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통회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즐겨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

하시리이다"

"[단 9: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단 9: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단 9: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단 9:8]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단 9: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었으며

[단 9: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단 9: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단 9: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 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다니엘의 회개기도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눈부셔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커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자신의 은혜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에 비해 자신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은혜가 너무나 초라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복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를 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왜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회개를 하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 년을 산다고 해도 다

니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와 다니엘의 회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은 죄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더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죄를 위해 자신이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대신에 회개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니엘의 기도를 아름다운 회개기도로 여깁니다.

"[단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단 9:14]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단 9: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단 9:16]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임한 이유는 저들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결국은 그 죄값을 치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들이 죄로 부터 떠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 참된 기도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기도에는 헛점이 보입니다. 사악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를 밝혀볼까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딘지 모르거나 자신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어딘지 모르거나 자신이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 보입니다.

니다. 마치 나 자신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 주신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우리들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에 차이가 있음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채 자꾸만 나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 어떠한 진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 9: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옵소서

[단 9: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
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단 9: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매우 독특한 요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하
나님께 '...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
옵소서'(17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얼굴 빛을 성소에 비
취달라고 해야 옳은 게 아닙니까? 왜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당신은 다니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
시나요?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먹
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
나님의 영광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의 빛이
비취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게 50평 아파

트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은 "제발 부탁이니 내게 50평 아파트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단 9: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단 9:21]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단 9: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단 9: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70년이라는 기간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이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식이나 가르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22절 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한 기쁨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유가 본문에 언급되었습니다. "...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23절 중).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유는 '큰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큰 은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이 받은 은총은 못 받은 겁니다. '은총'은 받고 있을지 모르나 '큰 은총'은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전해 주신 '칠십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칠십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24절). '네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칠십 이레'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칠십 이레'의 예언은 세계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천국의 거룩한 성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레'라는 말은 한 주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7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고 말한 것은 '칠년'을 의미합니다.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칠십 이레 때에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24절 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고 말하면서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7이레'와 '62이레'를 언급하면서 이 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을 때였습니다(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 왕이 날 때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기원후 26년).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비로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빈다. 다시 말해 '69이레'(7이레 + 62이레)는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때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69이레(483년)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예언의 설명은 너무나 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태이며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을 당해 황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하니 다니엘에게 있어서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단 9: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천사는 '69 이레'가 지난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26절 상). 이 말은 메시아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이후에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천사는 장차 '한 왕'이 세상에 등장하여서 그가 성읍과 성도를 훼파하고 그의 권세로 인한 세상의 종말은 홍수처럼 엄몰될 것이고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황폐해져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

이 작정되었느니라"(26절 하).

그 '한 왕'은 곧 '니므롯'과 같은 자이며 이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에도 나타날 것이며 미국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수천년 전에도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므롯 같은 자는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도요한은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사도요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했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러한 적그리스도들로 인해 세상은 황폐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케 된 세상은 '한 이레'동안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 이레' 중에 '69 이레'가 지나갔으니 지금은 '1 이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이레' 동안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하게 할 것입니다. 천사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그 이레의 절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27절 중).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이레의 절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한 이레의 절반'을 '마흔 두 달'로 언급했습니다. 이 '42개월'은 곧 '3년 6개월'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한 이레의 절반'과도 같습니다.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의 3년 6개월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모두 묵시록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는 대체적으로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이레의 절반'이라는 기간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한 이레의 절반'은 흔히들 말하는 '대환란' 기간을 뜻합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기 보다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1장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 역시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척량하셨으나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는 척량치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내버려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뜻합니다. 이 말은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 마당에 거하

는 자를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이들은 '3년 반'동안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3년 반'인데 성전 바깥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 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재앙은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환난과 재앙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 장

/

마귀와의
큰 전쟁

"[단 10:1] 바사 왕 고레스 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는 고레스 왕 즉위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는 기원전 534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기원전 534년까지 총리대신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의 나이가 거의 90세 정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으로 끌려왔을 때 아마도 15세 이상이 되었을텐데 만일 그가 끌려왔던 때가 15세 정도였다면 그의 나이는 85세쯤 된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얼마나 장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의 일어날 징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찌면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세계 징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민족 사람이었다면 그가 봤던 환상들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니엘처럼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내용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볼 수 없다고해서 환상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상은 당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처한 상황에 맞는 환상을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에 맞는 환상을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머니라면 자녀의 환상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환상의 내용도 그에 따라 보여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 10: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단 10: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
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환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잘 보는 능력이 탁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가 환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환상을 보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환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면 좋고 안 봐도 괜찮다는 마음의 자세가지고는 환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환상을 보길 원했는지 성경은 그가 21일동안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이레'는 곧 21일을 의미하는데, 만일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금식은 21일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환상을 보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확연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확연히 알기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간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의 미래에 대해 확연히 알기 원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 10:4] 정월 이십사 일에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

는데

[단 10: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단 10: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가 히데겔 강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이 밝았고 그 눈은 횃불 같았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았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5-6절).

이러한 모습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천사들도 빛난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9절 하). 아마도 다니엘은 입신(trance)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입신은 보통적인 잠(dream)과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잠 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잠이 드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입신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실신 또는 졸도나 기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얻어 맞고 실

신하고 기절하는 것은 결코 임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는 기절의 상태가 아니라 매우 선명한 내용을 체험하는 순간이 임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임신을 했다면 임신했던 순간에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꿈을 기억하는 것은 희미하나 임신 때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매우 선명한 내용이 보여졌습니다. 환상이란 내가 만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보는 것은 상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내용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진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의 의지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절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은 상상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 10:7]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단 10: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단 10:9]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 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입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떨며 도망했습니다. "...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7절 하). 그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친 것은 그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7절 상).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환상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역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행 9: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행 9: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행 9:6]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 9: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환상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
둘기처럼 임하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비둘기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아버지의 음
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
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증거하신 소리를 들었는
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박을만큼 간덩이가 부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보셨던 환상과 음성을 다
른 사람은 보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
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레 요한도 이 때의 환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환상을 같이 보았다면 세레요한처럼 예수께서 메시아란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 1: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단 10: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임신하였습니다. 그의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도저히 일어서거나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사의 도움을 입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몸이 떨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증 입신을 경험한 사람은 다니엘이 체험한 것과 같은 증상을 체험합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보통적으로 실신하게 되면 정신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입신의 경우엔 오히려 정신이 멀쩡하여 더욱 환상이 생생해집니다. 실신한 경우엔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만 입신의 경우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실신의 경우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몸의 마비 증상을 없애기 위해 마사지를 해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인공호흡도 해야 합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때에는 흉부압박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신의 경우엔 오히려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건들었다가는 귀한 영적 체험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10:11]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단 10:12]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단 10:13]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단 10:14]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매우 비밀스러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금식함으로써 겸비하고자 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파송했습니다. 이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알고자 했던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12절 하).

그런데 바사국 군이 천사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가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13절 상). '바사국 군'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국 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사국 군인이 천사 가브리엘을 가로 막은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군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 주었습니다. "...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13절 하).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알려진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마귀의 수장이었던 루시퍼를

상대로 전쟁을 치뤘던 천사장입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천사가 파송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듯이 마귀의 세력을 파쇄하는 미가엘 천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수호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호천사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합니다. 또한 수호천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듯이 우리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위해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었듯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단 10: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병병하였더니

[단 10: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단 10: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또 쓰러졌습니다. 또 다시 입신한 것입니다. 그가 입신했을 때 정신이 병병했습니다. "...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병병하였더니"(15절 하). '병병하다'라는 말은 <알람>인데 이는 '혀를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

니하였사오니..."(17절 상). 이처럼 입신에 빠지게 되면 온 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호흡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처를 입거나 뭔가에 압박을 당해서 호흡하기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단 10: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그때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져 주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18절). '만지다'는 <나가>로서 '손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안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안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가리켜 '사람 같은 모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손을 대서 안수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10:19]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

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건하라"고 두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하자크>입니다. 이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란 의미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강건케 하시면서 다니엘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건한 삶입니다.

"[단 10: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20절 상).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 온 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20절 하). 주님께서 바사 군과 싸우러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바사 군'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사제국의 군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사 군'에 이어 '헬라 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사 군 뒤에 헬라 군이 쳐들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군' 역시 마귀의 세력입니다. '헬라 군'은 역사상 존재했던 헬라제국의 군인이 아닙니다. 모두 영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역사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혼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혼적인 해석은 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기독교인들을 혼적인 세상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적인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마귀의 세력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사 세력이 끊어지면 헬라 세력이 등장하고 헬라 세력이 끊어지면 로마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 10: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21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미 성경은 마귀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에 대해 새롭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은 이미 성경에 구체적으로 마귀에 대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21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엘 군'이라는 것은 하나님 군대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 군대의 장관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군대의 군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군대의 군인이 아닙니다. 겁쟁이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11 장

/

적그리스도를
답은 자

"[단 11: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바사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메대-바사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메대-바사 연합국이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때 주님께서 도와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앗수르제국이나 바벨론제국처럼 바사제국 역시 악의 세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을 대적하는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갇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으며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됨은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나는 지금의 나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있는 자입니다.

"[단 11: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주님은 다니엘에게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2절 중). 세 왕은 바사제국의 첫번째 왕인 고레스 2세의 후계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캄비세스2세, 스멜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입니다. 그들 뒤를 이은 네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기원전 426-465)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하수어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사제국을 가장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시켰던 인물이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였던 왕입니다.

다니엘로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고레스2세 때 이미 80세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왕과 네번째 왕이 존재했을 때는 이미 다니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미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11: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단 11: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런데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장차 한 능력있는 왕..."(3절 상)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단숨에 바사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걸려 33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헬라 제국은 크게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이요..."(4절 상). 주님의 예언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12명의 장군들의 영토 분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은 셀류쿠스 장군에게,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은 톨레미 장군에게, 마케도니아는 카산더에게, 트라키아와 비시디아는 리시마쿠스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알렉산더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두 아들은 모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혈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단 11:5]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은 애굽의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는 헬라제국이 네 개로 분리될 때 가장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애굽은 다른 나라보다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톨레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류쿠스 1세였습니다.

"[단 11: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

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단 11:7]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단 11:8] 그 신들과 부어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
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톨레미 2세는 지중해와 유대지역의 확보를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시리아와의 골치 아픈 싸움을 끝내기 위해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략결혼은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의 계약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는 톨레미 2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드리기 전에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는 톨레미 2세의 제안에 따라 본처 라오디케를 쫓아내고 톨레미 2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쫓겨났던 라오디케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케는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하였고 베로니카와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한 뒤에 자신의 아들 셀류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 애굽과 시리아는 더욱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 화친을 맺으나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화친을 맺고 있습니까? 혹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니던가요?

"[단 11: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 가리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왕 셀류쿠스 2세(칼리니쿠스)는 애굽 왕 톨레미 3세(유에르게테스)로부터 받은 수모를 보복하기 위해 기원전 242년에 애굽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2년 후인 기원전 240년에 시리아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단 11:10]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단 11: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단 11: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단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단 11: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단 11: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단 11: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단 11: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단 11:18]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단 11: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단 11: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셀류쿠스 2세(칼리니쿠스)에게 두 아

들이 있었습니다.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형이었던 셀류쿠스 3세는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전쟁 중에 동료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형을 대신하여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애굽의 속하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공격하였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기원전 219년). 그는 더 나아가 애굽까지 공격했습니다.

주님은 안티오쿠스 3세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애굽 땅까지 침공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10절 하).

그 당시 애굽 왕은 톨레미 4세였습니다. 그는 쳐들온 안티오쿠스 3세를 대항해 싸웠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에게 빼앗겼던 옛 영토까지 되찾았습니다. 이 역시 주님은 "...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11절 하)고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톨레미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를 가리켜 "...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12절 중)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탈환 하였을 때에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의 권세는 약해져 갔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톨레미 4세를 그렇게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단 11: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톨레미 4세에 의해 패하여 수리아로 돌아온 안티오쿠스 3세는 또 다시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 국가인 아르메니아, 파르티아, 박트리아 등을 정복했습니다. 틈틈히 애굽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던 때에 톨레미 4세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로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독단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빌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굽 땅을 분할하겠다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기원전 198년).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땅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톨레미 4세가 원인모를 병으로 갑작스레 죽게 되자 겨우 7세밖에 되지 않은 그의 아들 톨레미 5세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오리게 되자 주변 국가의 여러 왕

들이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중 몇몇 사람들이 시리아의 힘을 빌어 독립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14절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들 시리아파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3세가 가나안 땅을 탈환하는데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시리아의 더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시리아로부터 성전의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 3세의 뒤를 이은 에피파네스 4세는 철저한 살륙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극심한 고난이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 인간의 욕심에 의한 선택과 결정은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 11: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단 11: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단 11: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

할 것이지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는 동맹국이었던 마케도니아의 협력과 유대의 시리아파의 도움을 받아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화로운 땅인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 땅을 점령한 뒤에(기원전 198년) 애굽 본토를 침략하려던 그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그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시리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애굽 땅을 공격하기 보다는 오히려 애굽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 톨레미 5세에게 내어주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오히려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를 배신하고 자기 남편인 톨레미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만듭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단 11:18]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단 11: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

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딸 클레오파트라의 배신으로 인해 애굽 정복을 실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켰습니다. 지중해의 섬들과 서쪽 해안지대를 공격하여 몇몇 섬들과 트라키아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해안지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18절 상).

하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손실을 당한 후에 결국 시리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18절 하).

로마 장군 스키피오에게 패하여 본국으로 돌아온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영토의 성읍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선성들로 향할 것이나..."(19절 상). 하지만 그의 계획은 반란군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단 11:20]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 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3세의 큰 아들인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입니다(기원전 187-175년). 필로파토르는 아버지 안
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떠맡게 된 배상금을 갚
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 본토와 부속 국가들로부터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둬드렸습니다. 주님
은 그를 가리켜 '토색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토색하다'라는
말은 <노계쉬>인데 이는 '조공을 수집하는 자'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에는 '강탈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제로 세
금을 거둬드리고 보화를 약탈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화들까
지 약탈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정부를 향해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민중의 소요가 극심해지자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헬
리오도루스가 필로파토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필로파토
르는 짧은 인생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단 11:21]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패배했을 때 당시 관례에 따라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로마에 볼모로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간계를 꾸며서 볼모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불러들여 자기를 대신하여 볼모로 있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그의 삼촌 에피파네스의 약속을 좋게 여겼고 그의 뜻대로 로마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로마에서 풀려나 곧장 고향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도중에 그의 형 필로파토르가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루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곧장 시리아로 입성하여 헬리오도루스의 군사를 제압하였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피파네스에 대해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의 신분이 비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권모술수로 행했습니다. 간교한 계략을 꾸밈으며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아침과 아부로 대했지만 약자에게는 비열함과 잔인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관료들과 주변 국가 왕들은 에피파네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왕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11: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주님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22절 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헬리오도루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에피파네스를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왕이 없

었던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헬리오도루스와 동맹을 맺고 에피파네스를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는 헬리오도루스와 오니아스 3세의 군사들을 격파하였습니다. 결국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훗날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단 11: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주님은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23절 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에피파네스는 조카 데메트리우스와의 약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겠다던 약조는 순전히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피파네스는 그의 조카인 애굽 왕 프톨레미 6세와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서는 오히려 애굽을 침공하여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거짓말장이며 간교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 11: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주며 모락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주님은 "...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주며..."(24절 중)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에피파네스는 여러 나라에서 노략한 물건을 주변 지도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행동입니다.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것입니다.

"[단 11:25]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락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단 11:26]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단 11: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70년에 애굽을 침략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군대를 격파시켰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

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2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 왕 톨레미 6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톨레미 6세의 관료들을 포섭하여 톨레미 6세를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애굽을 내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에피파네스는 즉시로 애굽을 침공하여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점령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두개의 왕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는 톨레미 6세에게 다스리게 하고 다른 하나는 톨레미 7세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분리시킴으로 인해 애굽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톨레미 6세는 에피파네스의 말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톨레미 6세는 지속적으로 애굽의 세력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톨레미 6세의 의도는 에피파네스에 의해 적발되었고 에피파네스는 재차 애굽을 침공하였습니다.

"[단 11: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후에 시리아로 귀국

하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교만 해졌습니다. 그는 임의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임의로 갈아치우는 악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을 직위 해제하고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메넬라우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직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에피파네스는 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11:29] 작성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단 11:30] 이는 갓담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단 11: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작성된 기한'은 에피파네스가 재차 애굽을 침공했던 것을 말합니다. 톨레미 6세가 에피파네스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서 오히려 기회를 타서 에피파네스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을 간파하고서 재차

애굽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차 때 침공했던 것보다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개입 때문입니다. 애굽의 배후에서 시리아를 견제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 2차 애굽 침공은 별로 큰 이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깃덤의 배들'은 구브로로 진격해 온 로마의 배들을 말합니다. 원래 구브로에는 시리아의 배들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애굽을 침공할 때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로마의 배들이 침공해 와서 그곳에서 에피파네스를 협박하여 시리아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피파네스는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사절 포필리우스는 에피파네스를 만나 그 주변으로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서 애굽에서 철수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철회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시리아로 철군하게 된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철군을 할 때에 다시한번 유대인들의 충성을 다지기 위해 유대의 헬라화 작업을 강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미 로마에 의해 치욕을 당하였던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에게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곳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리아 군사들은 성소에까지 들어와 성소를 무참히 더럽혔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 매일 드리

는 제사를 폐하며..."(30절 중). 이는 헬라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역시 헬라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31절 하).

에피파네스는 번제단이 있던 자리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설치했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바쳤습니다. 모든 유대인 종교의식을 헬라식 의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단 11: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에피파네스는 달콤한 말로 유대의 배교자들을 꾀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유대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 자존심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꺾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리아 군사를 대항하여 용맹하였습니다.

"[단 11: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

라"

'지혜로운 자'는 에피파네스의 회유정책이나 여러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시리아 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헬라화 정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최일선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경건파인 하시딤(Hasidim)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하시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수하였던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환란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굳건케 할 것입니다.

"[단 11:34]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궤홀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단 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 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힘을 다한 서기관들과 하시딤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쇠태해져 갈 무렵에 마카비 가문이 시리아를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인도를 통해 유대 사람들은 효과적인 항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마카비 가문의 혁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대성공을 이루게 되자 그동안 에피파네스에 빌붙어서 목숨을 부지하였던 비겁한 자들이 그 틈을 이용하여 마카비 쪽에 붙어서 함께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 많은 사람은 궤홀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34절 하)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단 11:36]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단 11: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단 11:38]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단 11: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주님은 에피파네스가 계속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져 자기 뜻대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신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때는 정해졌으며 그 정해진 때가 이르면 결국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최후는 멸망 뿐입니다. 비록 악인이 지금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단 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단 11: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단 11:42]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

로

[단 11: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마지막 때'라는 말은 에피파네스의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남방 왕이 북방 왕을 공격했습니다. 남방 왕은 애굽의 톨레미 6세입니다. 그가 로마의 힘을 입어서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역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즉시로 군비를 확보하여 아주 빠르게 애굽으로 진군했습니다. 주님께서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함이 마치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40절 하).

그가 애굽을 공격할 때에 또 다시 유대 땅에 들어갑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41절 상). 에피파네스가 애굽 땅을 공격할 때에 많은 나라들이 패망케 되었습니다. "...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41절 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에피파네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많은 나라들이 패망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에피파네스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악인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멸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혼란이 생겨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에피파네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에피파네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령대로 헬라화 정책을 아주 잘 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를 대항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에피파네스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삽니다. 오히려 믿는 자보다 더 잘 삽니다. 마귀가 주는 복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주는 복이 있듯이 마귀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결코 이런 세상이 주는 복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이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자일 것입니다.

"[단 11: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단 11: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 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많은 나라들이 에피파네스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피파네스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가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44절 상). 그를 번민에 빠지게 한 것은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군은 시리아 왕궁을 공격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즉시로 군대를 시리아 본국으로 돌리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애굽과 주변 나라를 완전히 정벌하려고 했던 계획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 군대는 곧장 시리아로 회군하게 하여 반란군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다른 한 군대는 에피파네스가 직접 지휘하여 유대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예루살렘 근처에 세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45절 상).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 군대를 배치한 것은 유대를 재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마카비 독립군에 의해 유대 내에서 시리아 세력이 많이 격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않았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함이었습니다. "...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45절 하). 주님의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죽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악인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악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12 장

/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단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때'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알려주신 70이레 중에서 마지막 한 이레 중 후 삼일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

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이레의 후 삼년 반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마흔두 달은 곧 삼년 반입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귀의 세력이 더욱 거세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1

절 중)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의 환난은 매우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까지 그 환난의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붙잡힘을 당하기 전까지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나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1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2절 말씀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2절 상)라는 말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구원을 받겠으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지혜 있는 자'는 구원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나는 지혜 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만일 그가 지혜가 있는 자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로 인해 그 사람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o를 가리켜 "...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3절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영원토록 비취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비취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후 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단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며 스스로 "내가 진짜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잘못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4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왕래하다'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옳다 하고 저 사람도 옳다 할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지를 구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단 12:5]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단 12: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단 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물 위에 있으셨습니다. 강 좌우 편에 섰던 천사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6절 하)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다니엘에게 전해졌던 예언들이었습니다. 주로 다니엘은 세계의 위대한 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제국과 메대와 바사제국 그리고 헬라제국과 로마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시며 그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7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면 다니엘에게 전해진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삼년 반이고 그 삼년 반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 이레의 절반', 곧 삼년 반(한 때 두 때 반 때)의 날이 올 것이며 그 날에는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이레의 후 삼년 반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마흔두 달은 곧 삼년 반입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러한 삼년 반의 기간은 성전이 더럽히는 기간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우리 믿는 자를 말하며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곧 성전이고 우리의 교회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시점과 사도요한의 시점은 각각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과 연관되어서 말세를 보았지만 사도요한은 그보다 훨씬 뒤 역사와 연관해서 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은 세계 대 제국의 멸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도요한의 포커스는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언급한 '그 때'와 사도요한이 언급한 '그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 때는 마귀가 붙잡힘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 때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 때는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 때는 성전이 깨끗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 때는 성도의 고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단 12: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단 12: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가

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단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
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
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단 12: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단 12: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주님의 설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주
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이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 일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다 된 나이였습니다. 이제 그는 곧 죽을 몸이었
습니다. 그는 아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거대한 제국들 뿐이었습니다.
다. 그가 바라봤던 제국들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강했습

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나라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들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이 화려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였으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매우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 12: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같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9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4절에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었

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하리라"

이는 다니엘에게 너무나 부담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이미 그는 피곤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달할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좀 더 건강한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니엘의 때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겐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너무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니엘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주님의 환상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더 이상 다니엘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쉬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다니엘의 때가 끝났

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단 12: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단 12: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의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지혜있는 자만이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1290일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90일 동안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할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세워짐으로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성전이 지금 마귀에 의해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지금 1290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삼년 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한 때 두 때 반 때'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290일은 요한계시록의 1260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30일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1260일이라는 숫자는 '삼년 반'을 의미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핍박과 방해로 받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 마귀의 핍박과 방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1260일에 속한 것입니다.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 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호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은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1335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335일은 매우 독특한 숫자입니다. 이는 1260일과 75일이나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발견되는 숫자입니다. 주님은 1335일이라는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335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290일이 성전의 더럽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335일은 그 더럽힘이 끝나는 때입니다. 1290일이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335일은 그 고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1290일은 마귀가 나를 핍박하는 때이지만 1335일은 마귀의 핍박이 끝나는 날입니다. 1290일은 마귀가 승리하는 때이지만 1335일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1290일은 마귀가 활동하는 때이지만 1335일은 마귀가 붙잡힘을 당하는 때입니다.

사도요한은 이러한 마귀의 활동이 끝나는 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마귀의 결국은 붙잡힘입니다. 마귀의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것
입니다. 마귀의 결국은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지옥같은
날들이 천국의 날로 변화될 것입니다.

**"[단 12: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13
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세상의 여러 일들로 인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60년간 총리대신으로 지
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제국과 메대바사제
국의 총리대신을 지내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다
가올 새로운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헬라제국과 로마제
국의 환상은 그에게 너무나 벅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

어야 할 늙은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은 끝나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매우 힘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주님은 "...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13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안히 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피곤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힘들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당신도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혹 당신도 쉼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당신이 다니엘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하거나 쉼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지금 당신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을 기다리라_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다니엘서 영해)

초판발행 2020. 9. 2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언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할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원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여부를 받음

▶ 목회학원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여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여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여부를 받음

- * 국제신학교는 다문화수교성로와 개혁신교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시교회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인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있음)

● 문의: 손혜스디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